

정답과 해설

중학교 국어 2-2



1 시선과 목소리

• 본문 p.007

확인 문제 01. (1) ○ (2) × 02. ④ 03. 관점

- 01. 시의 화자는 시인일 수도 있지만, 시인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작품 속에 아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 02.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인물의 행동만을 관찰하여 서술하기 때문에 심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모든 인물의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 03. 대상에 대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시각이나 태도를 관점이라고 하고, 그 관점은 작품 속에서 긍정적, 부정적, 객관적, 주관적 등으로 다양하게 드러난다.

1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개념 확인 **목표**

• 본문 p.008

01. 화자 02. ③ 03. ①

- 01. 화자란 '말하는 이'라는 뜻으로, 시에서는 '시의 화자', '시적 화자'라고도 한다.
- 02. 시인의 경험을 표현하는 시에서만 화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유형의 시에서 시인은 일정한 의도를 갖고 화자를 설정한다.
- 03. 시 속의 '나'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 대해 의연한 결심을 하고 있는 시인 자신이다.

확인 문제

• 본문 p.010

01. ① 02. ③ 03. ⑤ 04. 화자는 16살의 학생으로 볼 수도 있고, 어른이 된 시인 자신으로 볼 수도 있다. '가장 따뜻했던 저녁'을 가까운 과거로 해석한다면 화자는 16살의 학생으로 시인과 다른 인물로 볼 수 있으며, 먼 과거로 해석한다면 화자는 어른이 되어 16살 때의 일을 회상하는 시인 자신으로 볼 수 있다.

- 01. 화자는 아무도 없는 추운 집에서 배가 고파도 우유밖에 먹을 게 없는 매우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오답 해설

- ② '나'가 특별히 붕어빵을 좋아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나'는 배가 고파도 충분히 먹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아 붕어빵 냄새를 맡고 무척 먹고 싶어 했을 것임은 추측할 수 있다.
 - ③ 3연을 바탕으로 할 때 '나'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이다.
 - ④ '나'가 학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시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 ⑤ '나'가 친구와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시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02. ①과 ②는 이 시에서 차갑고, 외롭고,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한다면, ④와 ⑤는 훈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에 비해 ③은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03. 이 시는 외롭고 힘들었던 열여섯 살에 친구가 몰래 준 붕어빵에서 받은 따뜻한 감동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웃 간의 사랑이 아니라 힘든 친구를 챙겨 주고 아껴 주는 따뜻한 우정을 그리고 있다.
 - ② 어린 시절의 외로움 그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시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친구의 따뜻한 우정 덕분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음을 드러내고자 한 시이다.
 - ③ '나'가 자신의 가난으로 느끼는 초라함이나 열등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친구 관계에서 말보다 실천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사이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말하고자 한 시이다.
04. 이 시는 화자와 시인을 같은 인물로 보느냐, 다른 인물로 보느냐에 따라 하나는 어른이 된 시인으로, 다른 하나는 16살의 학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가장 따뜻했던'을 먼 과거로 보느냐 가까운 과거로 보느냐와도 연관되는데, 시의 본질인 '함축성'을 고려할 때, 답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독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학습 활동 **다지기**

• 본문 p.011

이해 다지기 문제 1. ⑤

목표 다지기 문제 1. ④ 2. ③

- 이해 1.** 이 시의 화자는 '나'로, '나'의 관점에서 시상이 전개되고 '나의 감정이 묻어나는 시어로 인해 시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 목표 1.** 이 시의 화자는 '나'로, '나'는 특정 경험을 가진 16살의 학생일 수도 있지만, 16살 때 일을 회상하는, 어른이 된 시인 자신일 수도 있다.
- 2.** 이 시는 '너'에 대한 귀뚜라미의 감정이나 짝사랑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슬픔에 대한 귀뚜라미의 위로가 중심이 되고 있다.

소단원 핵심 문제

• 본문 p.015

01. ① **02.** ⑤ **03.** ④ **04.** ② **05.** 붕어빵, '비질'과 '붕어빵'에는 모두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다. **06.** ⑤ **07.** ② **08.** ③ **09.** [A] '나' [B] '너' [C] 선재 **10.** (나)의 화자 '나'는 귀뚜라미이다. 시에서 '나'가 드러나지 않으면 시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나 정서, 시의 분위기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시를 감상할 때는 화자를 올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11.** ④ **12.** ④ **13.** ① **14.** ①과 ②은 사랑과 배려가 담긴 작지만 소중한 물건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①은 선재가 우유로 배고픔을 달래는 가난한 '나'를 위해 사 준 것이고, ②은 가난한 아버지가 추위에 떨며 갈 딸의 친구를 위해 직접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5.** ②

- 01.** 이 시의 화자는 '나' 한 명이며, '나'가 겪은 특정 순간이 서술되면서 그에 대한 '나'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 02.** 나머지는 모두 '나'의 외로움, 어려움, 쓸쓸함 등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붕어'만은 '나'가 느낀 따뜻함을 드러내고 있는 소재이다.
- 03.** '나'와 선재 사이에 오해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 04.** 화자인 '나'는 친구 선재가 몰래 준 붕어빵에서 묻어나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에서 큰 감동을 느끼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선재가 아니라 선재를 친구로 둔 중학생이다.
 ③ '가장 따뜻했던 저녁' 등의 시구를 통해 '나'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
 ④ '나'와 선재 사이에는 어떠한 갈등도 드러나지 않는다.
 ⑤ '나'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배려를 베푸는 내용은 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 05.** '비질'은 새벽을 깨워서 어둠을 물리치고, 아침을 밝혀서 희망을 비추며, 차가운 세상을 데워서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외롭고 쓸쓸한 '나'를 챙기고 배려하는 선재의 마음이 담긴 '붕어빵' 역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따라서 '비질'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시어는 '붕어빵'이다.
- 06.** (나)의 '나'는 심리보다 생각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으나,

(가)의 '나'는 '따뜻했던 저녁'이라는 시구를 통해 그날 기억에 대한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7.** (가)의 '나'는 선재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있으며, (나)의 '나'는 슬픔에 빠진 '너'를 위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두 시의 화자 모두 사람을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와 (나) 모두 힘들거나 슬픈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③ (가)와 (나) 모두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입장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④ (가)와 (나) 모두 꿈을 쫓는 등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⑤ (가), (나)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 08.** 시인은 '귀뚜라미가 우는 까닭이 '너'의 슬픔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라는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너'의 슬픔에 좀 더 효과적으로 공감하도록 하고 있다.
- 09.** (가)에서는 선재가 힘들고 외로운 '나'를 붕어빵으로 위로해 주고 있고, (나)에서는 화자(나)인 귀뚜라미가 엄마를 잃어 슬퍼하는 '너'를 위로해 주고 있다.
- 10.** 시에서 '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 11.** (나)에서 말하는 이는 글쓴이 자신으로,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일을 서술하고 있다.
- 12.** (나)는 수필로, 글쓴이의 경험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서 경험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나 깨달음을 밝히는 글이다.
- 13.** (가)도 '나'가 겪은 일을 짧긴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고, (나) 역시 '나'가 겪은 일을 겪은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가)에서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 바뀌지만 (나)는 '그 애의 집'에서 중심 사건이 벌어진다. (가), (나)의 내용 전개는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③ (가), (나) 모두 어느 한 대상만을 두고 다양한 측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④ (가), (나) 모두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⑤ (가), (나)는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을 뿐,

그 일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여 밝히고 있지는 않다.

14. ㉠과 ㉡은 모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담긴 물건이지만, ㉠은 배고픔을 채워 주기 위해 산 것이고, ㉡은 추위를 막게 해 주려고 직접 마련한 것이다.
15. (가)와 (나) 모두 말하는 이에게 감동적이었던 경험을 전달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나'는 16살 중학생 또는 16살 중학생 시절을 회상하는 어른이고, (나)의 '나'는 어린아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가), (나) 모두 '나'는 사람이다.
- ④ (가)에서는 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가), (나) 모두 한 사람의 시선에서 그려지고 있다.

2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개념 확인 국문

• 본문 p.018

01. 서술자 02. ④ 03. 1인칭 주인공 시점

01. 서술자는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가리킨다.
02. 그 누구의 심리도 직접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의 경우 서술자인 '나'의 심리는 드러난다.
03. '나'가 주인공이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서술하고 있다.

확인 문제

• 본문 p.020

01. ③ 02. ④ 03. '나'의 재능을 나 혼자 의심하는 것
 04. ② 05. ⑤ 06. ③ 07. ④ 08. '아버지'와 닮은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가 화가가 되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09. ③ 10. ① 11. ③ 12. 축구 13. ② 14. ①
 15. ② 16. 찻집 '고갱과 고흐' 17. ④ 18. ④ 19. 보석, 무균실, 예찬 20. 백선규는 유명한 화가이고, '나'는 백선규의 작품을 보며 감탄하는 평범한 시민이다. 21. ④
 22. ④ 23. ③ 24. 담임 선생님이 '나'를 초등부 사생 대표로 내보내셨기 때문이다. 25. ④ 26. 학예 대회 27. ④
 28. ⑤ 29. ④ 30. ④ 31. ⑤ 32. 사생 대회에 나가느라 꼭 보고 싶었던 축구 결승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33. ① 34. ④ 35. ①, ② 36. 예술을 잘 모르는 사람도 예술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37. ⑤ 38. ②, ⑤
 39. ① 40. ③ 41. 국립 미술 대학에 합격했는데 할아버지가 미술 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42. ④ 43. ③

44. ①, ④ 45. ② 46. ⑤ 47.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정신없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48. ④ 49. ②
 50. ② 51. ③ 52. ① 53. ③ 54. 이번 사생 대회에서 장원을 해서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상품으로 받는 것
 55. ④ 56. ④ 57. ② 58. 사생 대회 심사 결과의 일부라도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59. ⑤ 60. ③ 61. ⑤
 62. ⑤ 63. ① 64. 첫째는 내 실수와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게 너절하고 귀찮은 일로 느껴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굳이 진실을 밝혀서 한 아이에게 씻지 못할 좌절감을 안겨 줄 만큼 상에 대한 욕심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65. ⑤
 66. ③ 67. ④ 68. ②, ⑤ 69. ④ 70. ④ 71. ⑤
 72. ④ 73. ④ 74. ⑤ 75.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럽고 어리석다고 느꼈을 것이다. 76. ③ 77. ② 78. ③
 79. 누군가 나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져서 똑같은 대상을 두고 훨씬 더 뛰어난 작품을 그렸고, 앞으로도 더 뛰어난 작품을 그릴 수 있다. 80. ① 81. ③ 82. ③

01. '나'가 사람들을 속여서 그림을 비싸게 판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비싼 돈을 주고 '나'의 그림을 산 것이다.
02. 모든 사람들이 '나'의 천재적 재능을 의심하지 않지만, 오로지 '나' 혼자서만 자신의 재능을 항상 의심해 왔다.
03. '나'는 '그날 그 일이 있던 뒤부터 혼자서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재능을 의심해 왔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들켜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써 왔다고 고백하고 있다.
04.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오답 해설

- ①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③ '나'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나'는 관찰자가 아니라 주인공이다.
- ④ 이야기 밖의 제3자가 아니라 '나'가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⑤ '나'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서술하므로 다른 사람의 심리나 내면적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05. 아버지는 친구가 선생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황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아버지가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다고 생각하거나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06. 아버지와 천수기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였다.
07. 한때 그림을 그렸던 사람으로서 좋은 재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들만큼은 좋은 재료로 그림을 그리게 해 주고 싶어서이다.

오답 해설

- ① (마)에서 아버지의 말을 보면 '나'가 아버지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스스로 아들에게 사 주고 싶어서 사려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인 '나'에게 사 주기 위해 그림 재료를 산 것이다.
- ③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에게만 큼은 좋은 재료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싶은 바람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도 무리를 해서 사는 것이다.
- ⑤ 아들의 그림 실력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 실력을 확인하거나 시험해 보기 위해 좋은 그림 재료를 구입한다고 볼 수도 없다.

08. 선생님은 어린 시절 친구와 닮은 사람('나'의 아버지)이 화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친구가 화가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을 떠올리며 같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09. '나'의 담임 선생님은 '나'가 다니는 학교에 막 전근을 왔다.

오답 해설

- ① '나'가 전학을 왔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 ② '나'가 담임 선생님과 축구를 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 ④ 아버지와 '나'의 담임 선생님은 어린 시절 절친한 친구였어서 서로를 다시 만났을 때 매우 반가워했다.
- ⑤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직접 친구의 아들이라고 하여 봐주지 않을 것이며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난처해하고 있지는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10. '나'는 아버지와 담임 선생님의 관계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에 빠져 노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나'가 담임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없다.
- ③ '나'는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 ④ '나'는 좋아하는 축구를 하느라 정신없이 놀기만 할 뿐 다른 것에서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 ⑤ '나'는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의 친구라고 해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11. 아버지(㉠)와 담임 선생님(㉡)은 모두 친구의 아들이라고 해서 잘 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가 아버지와 담임 선생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무엇이든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12. '나'는 아버지와 담임 선생님의 당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축구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13. (사)~(아) 부분에서는 '나'가 자신의 생각을 혼자서 이야기하듯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 ③ 0의 '나'와 1의 '나'는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독백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때 0의 '나'와 1의 '나'는 제3자가 아니라 각각 주인공이며, 이 둘은 동시에 서술하지 않는다.
- ④ 작가가 '나'의 상황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자신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 ⑤ '나'를 바라보는 제3자는 없으며,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14. '나'는 그림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할 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15. '나'는 유명한 전시회가 열리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어쩌다 한 번 간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는 유명한 전시회를 반드시 꼭 찾아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16. (사)에서 '나'는 미술관 거리를 돌아다니다 눈과 다리가 아픈면 찾길 '고갱과 고희'로 가곤 하였다. 이어 '여기서'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나'가 현재 있는 곳은 '고갱과 고희'임을 알 수 있다.

17. 백선규는 흰색이나 검은색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 말하지 않았다.

18. 어떻게 이런 흰색과 검은색을 만들어 내는지 백선규가 말한 적이 없기에 그에게는 비밀이 많아 보인다고는 하였지만, 그래서 그림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19. '나'는 백선규의 인쇄된 작품에 대해 예찬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런 태도를 직접 보지 않은 그의 진품, 진품이 생산되고 있는 그의 작업실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20. '나'는 현재 찾집에서 유명 화가인 백선규의 작품을 보며 그 예술성에 감탄하고 있다.

21. 대회 마지막 날에는 축구 결승전을 하는 것일 뿐, 그 전에도 축구 경기는 진행되었다.

22. ④는 일방적으로 '나'의 사생 대회 참가를 결정해 '나'가 축구 경기를 볼 수 없게 한 담임 선생님의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23.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축구 결승전을 담임 선생님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어린 마음에 '나'는 담임 선생님이 밉고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24. '나'가 축구 결승전을 보러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담임 선생님이 사생 대회에 '나'를 억지로 내보내셨기 때문이다.

25. 나는 3학년인데 4학년이라고 속이고 4학년 이상만 출전하게 되어 있는 학예 대회에 참가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학예 대회는 사생 경연 대회 말고도 다양한 분야가 있다.
- ② 초·중·고 학생들이 모두 참가하는 대회였다.
- ③ 군민 체육 대회가 있는 그 주간에 학예 대회가 열렸다.
- ⑤ '나'는 부정 출전임을 들지 않았고, 대회에서 작품에 이름은 원래 쓰지 않았다.

26. 군민 체육 대회가 있는 그 주간에 학예 대회가 열리는데, 이것은 일 년 중 가장 큰 문예 행사여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분야별로 좋은 성적을 내게 하려고 노력하는 대회였다.

27. '나'가 조건을 걸고 대회에 나가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대회에 나가게 한 것이다.

28. 사생 대회가 시작하는 시간과 축구 결승전이 시작하는 시간이 같았다.

29. '나'는 자신의 최대 관심사인 축구 결승전이 같은 시간에 치러지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출전하고 있는 사생 대회도 패념치 않고 최대한 빨리 끝내고 축구 결승전을 보러 갈 수 있기를 바랐을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②, ③, ⑤ '나'는 사생 대회에 원해서 참가한 것이 아니므로 잘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으며, 오로지 '나'의 관심사는 축구 결승전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긴장하거나 어색해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고 싶거나 심사 결과가 궁금하거나 하는 등의 마음은 없었을 것이다.

30.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림을 잘 그려 내려는 경쟁 심리가 아니라 단지 축구 결승전을 보고 싶어서 그림을 빨리 그리려는 마음을 가진다.

31. 담임 선생님은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한 바와 같이 나이가 훨씬 많은 애들을 제치고 장원을 했으므로 '나'에게 그림 그리는 소질을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아버지는 '나'가 대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조용히 흡족해했다.
- ② '나'는 11살 이상만 참가하는 대회에 유일하게 10살로 참가해서 대상을 받았다.
- ③ '나'는 사생 대회를 끝낸 후 결과를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왔

고, 그날 저녁에 집에 찾아온 담임 선생님에게 결과를 들었다.

④ 담임 선생님은 '나'에 대한 심사 결과를 아버지에게 알려주기 위해 일부러 집으로 찾아왔다.

32. '나'는 사생 대회에 참가하느라 기다리던 축구 결승전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사생 대회가 끝난 후 울면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33. '나'가 고명딸이라는 사실은 '나'의 집에 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 줄 뿐 '나'의 집의 경제적 형편을 알려 주는 정보는 아니다.

34. '나'는 피아노를 배우다가 싫증 나면 대신 바이올린을 배우기도 하고 그림을 배우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④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5. '나'는 문예반을 하면서 글짓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럼에도 문예반 선생님이 좋고, 선생님이 쓴 동시를 보는 것이 좋아서 문예반을 좋아했다.

오답 해설

- ③ '나'가 글짓기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뜻이 있어서 문예반에 들어간 것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 ④ '나'는 돈을 벌기 위해 글쓰기를 할 생각은 없다.
- ⑤ '나'는 글짓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문예반을 들고 나서야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예반을 좋아한 건 문예반 선생님 때문이다.

36. '나'는 문예반 선생님이 쓴 동시를 보면서 진짜 문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듯, 예술 작품이란 예술을 잘 모르는 사람도 예술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37. ⑥을 보면 '나'가 미술 재료에 드는 돈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나의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들이다.

38. '나'는 어릴 때 미술 과외를 받아 남들보다 그림을 잘 그렸고, 미술 재료를 사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집이 부유해서 사생 대회 대표로 뽑힐 수 있었을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문예반 대표로 나가지 못한 것은 '나'가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예반 대표로 나가지 못한 것과 사생 대회 대표로 나가게 된 것은 서로 상관이 없는 일이다.
- ③ 문예반 선생님이 '나'에게 미술 대회에 나가 보라고 권유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농촌 애들이 '나'를 추천했다고 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39. '내 뒤에서 그림을 그리던' 것은 ㉠의 상황일 뿐 ㉠에 대한 '나'의 느낌은 아니다.
40. ③은 할아버지가 미술을 하려는 아버지를 반대한 이유이다.
41. 아버지는 미술이 좋아서 할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술을 평생 직업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국립 미술 대학에 지원했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집을 나가려고 했던 것이다.
42. 그렇게도 좋아했던 미술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아버지는 무척 슬프고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43. 아버지는 교제 중에 스스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며 병석에 누운 할아버지가 친구의 딸('나'의 어머니)을 불러 일방적으로 아버지와 약혼을 시킨 것이다.
44. 집이 가난했던 '나'는 장원을 했어도 상품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그림 그릴 재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고 믿게 되어 굳이 그림 연습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45. '나'는 선생님과 아이들을 따라 산과 들에서 보았던 것들을 일일이 그리지는 않았으나, 주 선생님의 "관찰도 공부다."라는 말을 무시하거나 필요 없는 생각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다.
46. 좀체 잘 없는 특별한 순간이지만 아버지가 염소를 팔아 '나'에게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사 주었던 일은 아버지가 미술에 대한 애정을 여전히 갖고 있으며 아들만큼은 계속 그림을 그리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오답 해설

- ① 아버지가 '나'에게 별 관심이 없는 듯했던 것은 미술 때문이 아니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 ② 아버지가 화가가 되려는 꿈을 버린 것 역시 미술을 좋아하지 않게 되어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다.
- ③ 이 부분을 통해서 미술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을 추측하기 어렵다.
- ④ 이 부분에서 미술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47. 아버지는 여전히 미술에 대한 애정이 있지만, 가난한 살림에 식구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는 대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림 쪽으로는 모른 척했을 것이다.
48. '나'는 3학년 때 참가한 사생 대회에서 장원했어도 상품을 받지 못했기에 아버지가 사 준 크레파스를 들고 대회에 나갔다.

49. '나'는 특선이나 입선은 상품으로 공책이나 연필밖에 주지 않으므로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50. '나'가 계속 암시해 온 중요 사건 '그때 그 일'이 그 번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글의 맥락으로 볼 때 '나'가 124번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 번호로 장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가 평생 잊지 못하는 어떤 사건이 이 번호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 ③ '나'는 이 사생 대회에 참가하기 1년 전에 이미 사생 대회에 참가했던 경험이 있다.
- ④ 바로 뒤의 문장에서 무장간첩을 훈련한 부대 이름이 124군 부대라서 이 번호를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하였다.
- ⑤ 사생 대회에 나가 124번이라는 번호를 받은 것은 '나'가 미술반에 들어간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51. '나'는 '그 여자애'를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크레파스를 들고 온 아이로 기억하고 있다.
52. '나'와 '그 여자애'는 앞뒤로 앉았고, 결국 둘은 비슷한 풍경, 즉 ㉡의 풍경을 그리게 된 것이다.

오답 해설

- ② 그림을 그리는 장소를 지정받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자리잡은 곳이 우연히 겹친 것이다.
- ③ 사생 대회에서 그림 그릴 풍경을 지정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두 사람이 그리기로 결정한 풍경이 겹친 것일 뿐이다.
- ④ '나'가 일부러 그 여자애가 그림 그리는 곳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자리잡은 곳에서 그 여자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 ⑤ '그 여자애'는 '나'가 가까이 있는 것을 싫어하는 듯 보였지만 자리를 옮기지는 않았다.
53. '나'는 예술을 부자들의 놀이일 뿐이라고 한 할아버지의 말이 어찌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54. '나'는 대회에서 장원을 하고자 했고, 그 상품인 크레파스와 스케치북도 간절히 바랐다.
55. ④는 ㉠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일 뿐 일 년 동안의 성숙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다.
56. '나'는 한낱 상품 때문이 아니라 이번에도 장원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물려받은 아들이라는 확신을 얻고 싶었기에 심사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57. 축구 결승전을 매년 해서 축구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림'이라는 새로운 흥밋거리로 인해 축구가 뒷전으

로 밀린 것이다.

- 58. '나'는 자신이 사생 대회의 장원이 되었는지가 너무나 궁금했기에 어떻게든 심사 결과를 빨리 알고 싶어서 학교를 떠나지 않은 것이다.
- 59. 주 선생님은 심사 위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자연스럽게 걸어왔다.
- 60. '나'는 아주 오랜 시간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내내 장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는 미술을 하고 '나'가 느낀 최초의 간절함이었을 것이므로 그만큼 기쁨도 컸을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원래는 그림에 별 관심이 없었으나 이번 사생 대회에서 유난히 상을 타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② '나'는 장원이 되기를 매우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었다.
 - ④ '나'는 몸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장원을 하게 된 것이 너무 좋아서 목이 맨 것이다.
 - ⑤ '나'는 주 선생님 때문이 아니라 장원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감격하고 있다.
61. '나'가 장원이 되기를 원했던 것은 단순히 상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릴 만큼 상품을 간절히 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62. 미국에서 공부를 한 것은 '나'가 아니라 '나'의 큰아이이다.
63. '나'는 '나'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그 일을 그때 아버지에게든 선생님에게든 말했다면 그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이제와 그 누구도 원망하지는 않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나'는 누군가에게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나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기로 한다.
 - ③ 바로 뒤의 내용을 통해 '나'는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 ④ '나'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과정이 너절하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 ⑤ '나'가 진실을 밝혔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었다.
64. '나'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귀찮았고, 누군가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면서까지 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65. '나'가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자신이 받을 상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아이'의 좌절감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굳이 그렇게 까지 해서 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66. '나'의 요구로 그림이 전시된 것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전

시회를 열기 위해 일부러 입상작들을 찾아왔다.

- 67. (보)에서 '나'는 자신에게 재능이 있음을 확신하고 한껏 우쭐함,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 68. '나'는 내가 그린 그림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보는 것이 뭔가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데는 입상을 못한 평범한 아이들이나 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나'가 마지막 날에 전시를 보러 간 것은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 볼 생각이 없다가 자신도 모르게 우연히 가게 된 것이다.
 - ③ '나'는 전시장에 갈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런 곳에 가서 보고 배워야 할 평범한 아이들이지 자신처럼 창작의 재능이 있는 사람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나'는 자신을 창작의 재능과 작품을 감상할 안목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69. 장원을 받은 '나'의 그림은 맨 안쪽에, 다른 작품보다 높이 걸려 있었다.
70. '나'는 그림에 자신의 크레파스에는 없는 회색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보고 절대로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오답 해설

- ① 앞선 내용에서 '나'는 자신이 부여받은 참가 번호 124번을 썼다고 말하였다.
 - ② 바로 뒤의 내용을 통해 풍경은 자신이 그린 것과 비슷하다고 밝히고 있다.
 - ③ '나'도 히말라야시다 가지 끝 부분을 그렸으나 그것이 자신에게는 없는 회색 크레파스로 그려져 있음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 그림이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나'가 확신하게 된 것이다.
 - ⑤ '나'에게는 회색 크레파스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색으로 히말라야시다 가지 끝 앞부분을 색칠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71. '나'는 그림을 보러 가기 전에는 자신의 그림이 제일 높은 곳에 전시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과 우쭐함을 느꼈겠지만, 그 그림이 자신이 그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는 충격과 놀라움에 휩싸였을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그림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나'는 실망한 것이 아니라 충격에 빠지게 된다.
- ②, ③ 그림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되기 전에 '나'는 두려움이나 긴장감 같은 감정은 전혀 없었다.

④ 그림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더 이상 자신이 장 원상을 받은 것에 대해 기뻐하지 못하게 된다.

72. '나'는 주 선생님이 심사 위원이 아니기에 진짜 '나'의 그림을 제외하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73. ④는 '나가 스스로에게 한 질문인 반면, 나머지는 이런 상황 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다.

74. '나'는 장원을 받는 것으로 자신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는 사 람이 없을 것이라고 우쭐했지만, 진실을 알고 누군가가 자신 보다 그림을 더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자 열등감과 패배감이 들었을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현재 기쁨을 느낄 겨를이 전혀 없다.
- ② '나'는 자신의 재능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열 등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을 뿐 도전 의식까지 드러내 고 있지는 않다.
- ③ '나'는 그 그림의 주인이 자신보다 그림을 잘 그린다는 사 실을 깨닫고 열등감과 패배감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앞으로 그림을 잘 그릴 수 없을 것이라고 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림을 더 잘 그리기 위해 노 력하는 계기가 된다.
- ④ '나'는 이 일 이후 자신으로 하여금 항상 최선을 다해 그림 을 그리게 해 준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기보다 주변을 늘 경계하며 최고가 되기 위해 긴장하며 살아간다.

75. '나'는 다른 사람의 그림으로 장원을 한 것도 모르고 주 선생 님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자신의 행동이 무척이나 부끄 러웠을 것이다.

76. '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에는 신 경 쓰지 않고 있다.

77.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 끄러운 것이다.

78. 그림의 주인이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이유 때문에 말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그림의 주인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

79.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자신의 재능을 확인받고 한껏 우쭐해 져 있을 때 그 확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느낀 좌절이다.

80. 풍경화가 진정한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풍경화를 그리 지 않았다고 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81. (두)에서 '나'는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하면서 "나'는 그림을 좋아하고 저 사람은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그만'이라고 말한

다. 이를 통해 '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각자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 ② '나'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알 았던 사람을 아는 척하기 귀찮아 할 뿐이다.
- ④ '나'는 과거에 알았던 사람을 굳이 아는 척할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는 척하는 과정이 귀찮기 때문에 아는 척하지 않는 것이다.
- ⑤ '나'는 백선규에게 실례가 될까 봐 아는 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귀찮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82. 이 글은 각각 다른 서술자인 '0'와 '1'을 내세움으로써 동일한 상황을 인물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억하는지를 잘 보 여 준다.

학습 활동 다지기

• 본문 p.042

이해 다지기 문제 1. ④

목표 다지기 문제 1. ④ 2. ③ 3. ①

이해 1. '1'의 '나'의 그림을 가지고 '0'의 '나'가 장원을 한 사건은 4 학년 때 참가한 사생 대회에서 벌어진 것인데, 이보다 앞 서 3학년 때의 사생 대회에서도 '0'의 '나'는 장원을 했었다.

목표 1. '1'의 아버지는 여자는 예쁘게 커서 시집만 잘 가면 된다 고 생각해서 딸이 미술 공부하는 것을 반대했다.

2. 서술자가 한 명이 되더라도 그림이 바뀐 사건은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원인이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3. ②, ③, ④는 '1'의 '나'가 겪은 갈등이고, ⑤는 누구의 갈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소단원 핵심문제

• 본문 p.047

01. ② 02. ⑤ 03. '나'는 현재 매우 유명한 화가이며 자 존심이 무척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도 자신이 스스로의 재능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들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04. ① 05. ③ 06. ② 07. (다)의 '나'는 사 생 대회에 나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라)의 '나'는 장원 상을 무척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의 '나'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없지만 (라)의 '나'는 가난 한 집안 형편 탓에 그림 연습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는 사생 대회에서 상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08. ② 09. ④ 10. (가)~(나)에서는 '0'의 '나'에 대한 '1'의 '나'의 속마음이 잘 드러나고, (다)~(마)에서는 '1'의 '나'에 대한 '0'의 '나'의 속마 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두 명의 서술자를 설정하게 되 면 동일한 상황에 놓인 두 사람의 심리를 비교해 볼 수 있다.

11. ④ 12. ② 13. 열등감, 부끄러움 14. ② 15. 상
16. ⑤ 17. '1'의 '나'는 '나는 그림을 좋아하고 저 사람은 자
신의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0'의
'나'는 '어떤 작품이라도, 그게 포스터물감으로 그리는 반공 포
스터라도 내가 가진 능력 전부를, 그 이상을 쏟아 부어야 했
지.'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최고가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01. 이 소설은 '0'의 '나'와 '1'의 '나'가 서로 교차하며 서술되고 있다.
02. '0'의 '나'는 '그때 그 일'을 계속 기억하며 살고 있지만, '1'의
'나'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1'의 '나'는 거만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아
가려는 것이다.
② '0'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
을 들이지 않으려고 하며, '1'의 '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살려고 한다.
③ '0'의 '나'는 '그 일'에 대해 스스로 탓하고 있지 않으며 '1'
의 '나'는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고 있지 않다.
④ '0'의 '나'는 이미 유명한 화가이지만 그러한 자신의 위치
를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1'의 '나'는
그림을 좋아해서 미술관에 가끔 가는 것일 뿐 좋은 그림
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노력하고 있지는 않다.

03. '나'는 '그때 그 일' 이후로 끊임없이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며
살아왔으나, 현재 유명한 화가라는 사회적 위치에 올라 있
고, 자존심이 무척 강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누구에게도 자
신의 부족한 모습을 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해 온 것이다.
04. (가)~(마)는 서술자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현재의 '나'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며 독백하듯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③ 제3의 인물이 아니라 '나'가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있다.
④ 다른 사람이 겪은 일이 아니라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전
달하고 있다.
⑤ '나'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다 드러
내고 있다.

05. '아버지'는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등을 그저 딸이 해 보고
싶어 해서 경험 삼아 배우게 해 준 것일 뿐 어느 것이 더 낫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06. (나)의 끝부분을 보면 '나'는 원래 열심히 하려던 생각이 없었
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열심히 할 생각이 더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07. (다)의 '나'와 (라)의 '나'는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 사생 대회
를 대하는 태도 역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08.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기억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사생 대회에 대한 두 서술자의 다른 생각이 드러나고 있
지는 않다.
③ 두 서술자는 모두 상대방을 기억하고 있다.
④ 두 서술자 모두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⑤ 두 서술자 모두 사생 대회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에 대
해 서술하고 있다.

09. '1'의 '나'는 지독한 냄새 때문에 그 남자애의 옆에도 있기 싫
어했고, '0'의 '나'는 여자애를 보며 저런 부잣집 아이는 자기
와 다시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0. (가)~(마)에서는 동일한 상황에 놓인 두 사람이 각자의 입
장에서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독자 입장에서는 이
들의 심리를 비교하며 읽는 재미를 얻게 된다.

11. '1'의 '나'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
고 인정하고 있다.

12. '나'는 '자신이 잘못을 바로잡았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

13. '나'는 자신이 그리지도 않은 그림으로 상을 받게 되었다고
감격해서 울기까지 했던 것이 부끄러운 한편, 장원작을 그린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고 여기며 열등
감을 느꼈을 것이다.

14. '1'의 '나'는 권력이나 돈을 손에 쥐지 않았으나 그 때문에 불
편한 적도 없다고 하였다.

15. (가)에서 '1'의 서술자는 상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는 면모를
보이지만 (다)에서 '0'의 서술자는 상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

16. '나'는 백선규를 만나 이런저런 말로 자신을 알아보게 해야
하는 과정이 귀찮아서 아는 척하지 않았다.

17. '1'의 '나'는 평범하고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아온 반면, '0'의
'나'는 항상 치열하고 긴장하며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01. ④ 02. ① 03. ④ 04. 이 시는 초반에는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또는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와 같은 시구를 통해 차갑고 쓸쓸한 분위기가 주로 드러나다가 후반에는 ‘가장 따뜻했던 저녁(또는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과 같은 시구가 등장하면서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로 마무리된다. 05. ⑤ 06. ⑤ 07. ⑤ 08. 봉어빵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소재는 조약돌로서, 봉어빵과 조약돌은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의미한다. 09. ② 10. ① 11. ㉠에서 ‘나’는 ‘그날 그 일이 있을 뒤부터’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약점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에서는 ‘백선규’라는 인물을 잘못을 해 놓고도 “난 잘못된 거 없소.”라고 시치미를 뻔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나’는 자신의 약점이나 잘못을 남에게 드러내려 하지 않는 자존심 강하고 이중적인 면을 가진 인물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12. ② 13. ④ 14. ⑤ 15. ③ 16. ② 17. (나)와 (라)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있었던 일을, 두 사람의 입장에서 각각 서술하여 동일한 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각 인물의 내면 심리를 비교하도록 한다. 18. ① 19. ‘나’는 (가)에서 자신의 그림이 제일 높은 곳에 걸려 있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을 느끼지만, (나)에서 그 그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다가 (다)에서 그 그림이 자신의 그림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부끄러움과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20. ② 21. ①, ⑤ 22. ③ 23. 긍정적인 효과는 한 서술자의 입장에 좀 더 집중함으로써 감정이입이나 공감을 보다 깊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효과는 한 인물에 대한 정보가 줄어들면서 같은 상황에 처한 두 인물의 심리를 비교해 보는 재미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 01. (나)의 ‘나’가 겪은 일은 ‘엄마 돌아가신 지 / 언제인데’라는 구절을 통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되어 있지 않다.
- 02. (가)에서 ‘나’는 선재의 행동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며, (나)에서 ‘나’(귀뚜라미)는 엄마를 잃은 ‘너’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와 (나)의 ‘나’는 모두 사람에 대해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가)의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외롭고 힘들게 기억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현실을 차갑고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도 역시 차갑고 냉정한 시선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③ (나)에서 화자가 처한 현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화자 자신의 처한 현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④ (가)와 (나) 모두 사람들에 대한 원망 어린 시선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⑤ (가)와 (나) 모두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위로, 격려가 소중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 03. (나)는 ‘나’(귀뚜라미)가 ‘너’를 위로하고 있으나, <보기>에서는 ‘나’(오빠)가 ‘너’(여동생)와 자기 자신을 함께 위로하고 있다.
- 04. 이 시는 초반의 차가운 분위기에서 후반의 따뜻한 분위기로 점차 바뀌어 간다. 차가움과 따뜻함을 드러내는 대조적인 시구를 찾아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한다.
- 05. (가)와 (나) 모두 매우 주관적인 관점에서 다른 인물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06. 시 뒷부분을 보면 사실 ‘나’의 가방이 실제로 열렸던 것이 아니라 선재가 봉어빵을 몰래 넣어 주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나’가 혹시 기분이 상하거나 민망해 할 것을 배려한 행동이다.

오답 해설

- ① ‘나’가 실수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선재가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고 한 것은 정말로 ‘나’의 가방 지퍼가 열렸기 때문이 아니라 봉어빵을 몰래 넣어 주기 위해서였다.
- ③, ④ ‘나’의 책가방 지퍼가 실제로 열려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여기에서는 그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 07. 그 애의 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딸의 첫손님이라며 반갑게 대해 주었다.
- 08. (가)의 봉어빵은 선재가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우정과 배려를 의미하고, (나)의 조약돌은 ‘그 애 아버지’가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의미한다.
- 09. 이 글은 두 명의 서술자, 즉 (가)의 ‘나’와 (나)의 ‘나’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 10. (가)의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실제로 스스로는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⑤ (가)의 ‘내가 그린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화랑의 벽을 장식하고 값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이라는 구절에서 (가)의 ‘나’가 (나)에서 말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 백선규’임을 알 수 있다.
- 11. ㉠과 ㉡에서 드러나는 (가)의 ‘나’는 남에게 자신의 허물이나 약점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 이중적이고 자존심 강한 인물이다.

12. '나'는 그림을 빨리 내고 공설 운동장까지 뛰어갈까도 생각했지만 가 봤자 축구 결승전이 거의 끝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였다.
13. '나'는 원했던 일이 아니었지만 3학년 때 사생 대회에 나가 장원을 받았던 일을 계기로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림에 재능이 많았던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가지게 된 것이다.
14. (나)의 중간 부분에서 '나'는 크레파스나 스케치북 같은 상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15. (가)의 아버지는 '나'가 훌륭한 화가가 될 수도 있으니 계속 미술 공부를 시키라는 과외 선생님의 말에 딸이 그림으로 돈벌 것도 아닌데 힘들게 미술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처음에 미술 과외를 시킨 것도 그저 딸의 취미 정도로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16. '1'의 '나'는 딱히 그림을 열심히 그릴 생각이 없었으나 재능이 있어서 잘 그리는 편이며, 사생 대회에서는 자리를 옮기고 싶어했으나 결국 그러지 못했다. '0'의 '나'는 그림에 관심이 없었으나 재능을 발견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오답 해설

- ① '1'의 '나'는 그림을 싫어하지도 특별히 더 좋아하지도 않는다. '0'의 '나'가 그림 그리는 것을 싫어하는지는 알 수 없다.
- ③ '0'의 '나'는 그림에 재능이 있었기에 처음 나간 사생 대회에서 장원을 받은 것이다.
- ④ '1'의 아버지는 '나'가 돈벌이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반대하였다. '0'의 아버지는 '나'가 화가가 되기를 원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한다.
- ⑤ '1'의 '나'는 사생 대회에서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17. 동일한 사건을 겪은 두 인물이 각자의 입장에서 그때의 기억과 감정을 서술하고 있어서 독자들은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두 인물의 심리를 비교해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18. 이 글에서 '나'는 그림의 주인이 바뀐 것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밝힐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갈등 상황에 처한다.

오답 해설

- ② 자신의 운명에 맞서는 갈등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③ 실수에서 벗어난 일이라는 하지만 인물과 집단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④ 이 글에서 '나'는 혼자 내적 갈등만 하고 있을 뿐 그 그림의 주인과는 어떠한 외적 갈등도 하지 않았다.

⑤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19. '나'의 심리는 (가), (나), (다)의 전개에 따라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20. 그 그림에 적힌 '124'번은 '나'의 번호이지만 '나'의 글씨로 쓰여 있지 않다. 이를 통해 그 그림의 주인이 실수로 '나'의 번호를 적은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21. (가)는 말하는 이가 달라지지 않으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가)의 경우 말하는 이의 감정이 절제되고 압축되어 드러나는 반면, (나), (다)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나고 있다.
22. 작가의 주제 의식에 따라 말하는 이의 성별이나 나이, 신분 등이 달라지게 된다. 말하는 이를 반드시 다양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나'로 설정해야 할 필요도 없고, 작가 자신이 드러나도록 할 필요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이를 어떻게 설정해야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23. 어느 한 서술자에 의해서만 서술되면 그 서술자에게 좀 더 집중하고 공감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인물의 내면은 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2 한글은 바르게, 발표는 효과적으로

• 본문 p.061

확인 문제 01. ④ 02. ⑤

01. 어려운 한자로는 백성들을 가르칠 수 없었고, 우리 백성들이 쉽게 익혀 쓸 수 있는 우리 글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한글이 만들어졌다.
02.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은 발표자의 목적과 의도이다. 따라서 발표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매체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무조건 많이 준비한다고 해서 적절한 것은 아니다.

1 우리의 훈민정음

개념 확인 목록

• 본문 p.062

01. ⑤ 02. ② 03. ⑤

01. 개인이 사용하는 그림 문자는 이를 알지 못하는 상대가 이해하기에는 어렵고, 그림을 활용한 의사 표현은 문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다양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
02. 기본 자음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이다.
03. ⑤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자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며 어떤 문자의 우수성을 보여 주는 점으로 볼 수도 없다.

확인 문제

• 본문 p.064

01. ① 02. ① 03. ⑤ 04. ② 05. ① 자주 정신 ㉠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글을 몰라 그 뜻을 펴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김. ㉡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하게 쓸 수 있게 함. ㉢ 실용 정신 06. ④ 07. ⑤ 08. ③ 09. ② 10. 누구나 쉽게 익혀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야 한다. 11. ② 12. ③ 13. ① 14. ⑤ 15. ④ 16. ⑤ 17. 기본 자음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고, 기본 모음자는 하늘, 땅, 사람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 공통적으로 ‘상형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다. 18. ② 19. ② 20. ⑤ 21. 기본 자음자는 상형의 원리, 그 외 자음자는 가획의 원리에 의해 창제되었다. 22. ④, ⑤ 23. ③ 24. ① 25. ⑤ 26. ③ 27. ② 28. ㉠ 초성에는 자음자를, 중성에는 모음자를 사용하고 이를 합쳐 글자를 이룬다. ㉡ 중성에는 다시 자음자를 쓰는 방식으로 글자를 이룬다. 29. ③ 30. ① 31. ③ 32. ① 33. ② 34.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일대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35. ③ 36. ③ 37. ③

01. 당시에는 우리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가 문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한자를 몰랐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없었다.
02. 한글을 창제하기 이전에는 글을 표기하는 문자 체계가 한자 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글을 읽을 수 없었고, 백성들과 지배 계층 사이에 글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03. 어려운 한자로는 백성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판단한 세종 대왕은 우리 백성들이 쉽게 익혀 쓸 수 있는 우리 글자의 필요성을 깨닫고 한글을 창제하게 된 것이다.
04. 세종 대왕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한자로 우리말을 표현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많은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 불편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새 문자를 만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훈민정음』의 서문에서 ②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5. 우리말이 중국과 다름을 인식한 것에는 자주 정신이 나타나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글을 몰라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긴 것에는 애민 정신이 나타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글을 만든 것에서 실용 정신이 나타난다.
06. 한글 창제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백성들도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어 문자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07. 세종 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자음자 17자, 모음자 11자로 이루어졌는데, 이처럼 한글은 단 28자의 문자로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미국의 언어학자인 ‘라이샤워’는 한글이 ‘독창적이고 놀라운 음소 문자’라고 말하고 있다.
- ② 미국의 언어학자인 ‘라이샤워’는 한글이 ‘세계 어떤 나라의 문자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를 지녔다고 표현하고 있다.
- ③ 세종 대왕은 누구나 쉽게 익혀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고 제시되어 있다.
- ④ 한글은 ‘음소 문자’로, 하나의 문자 기호가 하나의 소리를 나타낸다.
08. 한글이 한자의 모양을 단순화하여 만든 글자라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09. 한글이나 로마자(알파벳)는 하나의 문자 기호가 하나의 소리를 내는 음소 문자로 표음 문자에 속한다. ② 한자인 ‘삼(三)’은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표의 문자)이다.

- 10. 한자는 수가 많고 익히기 어려워 백성들이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종 대왕은 백성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11. 5개의 기본 자음자는 모두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글자이다.
- 12. 자음 기본자는 ‘ㄱ, ㄴ, ㄹ, ㅅ, ㅇ’의 5글자이다.
- 13.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이다.
- 14. ‘ㅅ’은 이의 모양을,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ㅁ’은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15. ‘ㅇ’은 하늘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 16. 한글의 기본 모음자는 우주가 하늘, 땅,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천지인(天地人)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오답 해설

- ① ‘ㅇ’은 하늘을 본떠 둥글게 만들었다.
- ② ‘ㅣ’는 사람을 본뜨되 서 있는 모양으로 만들었다.
- ③ ‘ㅡ’는 땅을 본떠 평평하게 만들었다.
- ④ 기본 모음자는 획을 추가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든 상형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 17. 기본 자음자와 기본 모음자는 모두 사물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으므로 상형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 18. ‘ㄴ’에서 획을 더하여 ‘ㄷ’을 만든 데에는 소리가 거세진다는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으나 ‘ㄹ’은 이체자로 소리가 거세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 19. ‘ㄷ’은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지만 더해진 획이 가획처럼 소리가 거세진다는 원리는 반영되지 않아서 ‘이체자’라고 한다.
- 20. ‘ㅅ’은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기본 자음자이다.
- 21. 기본 자음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그 외 자음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센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 22. 기본 모음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나머지 모음자는 기본자를 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 23. ‘ㅅ’은 ‘ㅇ’에 ‘ㅣ’를 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 24. ‘ㄱ, ㄷ, ㅌ, ㅍ’은 자음자를 나란히 붙여서 만든 글자로, 병서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오답 해설

- ⑤ ‘ㄱ, ㄷ, ㅌ, ㅍ’은 이미 만든 자음자를 나란히 붙여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세종 대왕이 창제한 자음자 17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25. ‘ㅅ’은 기본 모음자를 한 번 합하여 만든 글자 ‘ㅆ’에 기본 모

음자 ‘ㅇ’을 한 번 더 합쳐서 만든 글자이다.

- 26. 초성과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우리말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 모아쓰기를 했고, 종성까지 더해진 우리말은 자음자를 다시 쓰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자음자끼리만 결합하면 글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모음자가 있어야 한다.
- ② 초성, 중성만으로도 하나의 글자가 이루어진다.
- ④ 초성, 중성만으로 글자가 이루어질 때에도 각각의 글자를 ‘가, 노’처럼 합쳐 나타낸다.
- ⑤ 초성, 중성, 종성이 하나의 글자를 이룰 때에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한꺼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를 기준으로 모아쓰기를 한다.
- 27. ㉠은 풀어쓰기이고 ㉡은 모아쓰기이다. 모아쓰기를 하면 어떤 글자인지 잘 알 수 있어 읽고 쓰기에 편리하다.
- 28. ㉠은 초성, 중성으로서 자음자와 모음자가 사용되었고, ㉡에는 초성, 중성 외에 종성이 사용되었다.
- 29. 이 글은 한글이 다른 글자와 비교하여 컴퓨터 자판에서 입력이 매우 편리하다는 점을 들어 한글이 정보화 시대에 매우 우수한 글자임을 말하고 있다.
- 30.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 자리 잡은 까닭을 글쓴이는 한글의 효율성에서 찾고 있다. 즉, 한글은 소리글자라서 발음이 곧 표기가 되며 한 글자가 한 가지 발음으로 읽히므로 빠른 정보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 31. ㉡의 말은 이어지는 내용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24자라는 유한한 수의 기호로 무한에 가까운 천지자연의 소리를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글이 과학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 32. 컴퓨터의 자판이나 휴대 전화 자판에서 한글 자음과 모음은 서로 쉽고 빠르게 결합, 입력되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 매우 적합한 문자라고 말하고 있다.
- 33. 제시된 휴대 전화 자판은 가획의 원리뿐만 아니라 상형의 원리와 합성의 원리도 적용된 것이다.
- 34. 음성을 그대로 문자로 전달하고 다시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디지털 시대의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특성 때문에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35. 한글 모음 ‘ㅏ’는 어디서나 같은 소리를 내지만, 영어 모음 ‘a’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소리를 낸다. 즉,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일대일로 대응된다.
- 36. 높임 표현이 발달한 것은 우리 언어의 특성이기는 하지만 한

글의 가치와 우수성을 보여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37. 한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일상사는 한글의 우수성이나 가치를 보여 주는 자료로는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핵심문제

· 본문 p.077

01. ⑤ 02. 우리 백성들이 쉽게 익혀 쓸 수 있는 우리 글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 어려운 한자로는 백성들을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03. ② 04. 자주 정신, 애민 정신, 실용 정신 05. ⑤ 06. ① 07. 기본 모음자는 ‘·, ㅡ, ㅣ’ 세 자인데, ‘·’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뜨고, ‘ㅡ’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떴으며,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08. ② 09. ③ 10. ④ 11. 모음자는 기본자 3자를 서로 합하는 합성의 원리를 통해 총 11자를 완성하였다. 12. ⑤ 13. ⑤ 14. ② 15. ③ 16. ② 17. ④ 18. ④ 19. ⑤ 20. 모아쓰기는 한꺼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음절)를 기준으로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하여 놓은 방식이라 어떤 글자인지 잘 알 수 있어 읽고 쓰기에 효율적이다. 21. ④ 22. ②, ⑤ 23. 작, 적 24. ④ 25. ③ 26. 한글 모음 ‘ㅏ’는 모든 단어에서 같은 소리를 나타내지만, 영어 모음 ‘a’는 단어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낸다. 이처럼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일대일로 대응해서 변화하는 의사소통 방식에 다른 어떤 문자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으므로 미래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위력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27. ② 28. ② 29. ① 30. ⑤ 31.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자를 컴퓨터로 입력하려면, 해당 소리를 로마자로 표기한 후 원하는 한자를 찾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한글은 모든 자음과 모음이 자판에 기록되어 있어 다른 문자를 활용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01.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은 한자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노력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02. 당시 백성들은 한자를 몰라 책을 읽을 수 없었다. 따라서 백성들이 쉽게 익혀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글이 창제되었다.
03. 한자와 우리말이 통하지 않음을 알고 새로운 글자를 만든 것이다.
04. ㉠에는 자주 정신, ㉡에는 애민 정신, ㉢에는 실용 정신이 나타난다.
05. 자음의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자음자는 ‘ㅋ, ㆁ, ㆅ, ㅂ, ㅍ, ㅈ, ㆆ, ㅎ’으로 9자이다.

오답 해설

- ① · (아래아), ㆁ (반치음), ㆆ (여린히움), ㆏ (옛이음)이 이에 해당한다.

② ‘ㄱ, ㆁ, ㆅ, ㅂ, ㅍ, ㅈ, ㆆ, ㅎ’가 이에 해당한다.

④ 자음 기본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고, 모음 기본자는 ‘·, ㅡ, ㅣ’이다.

06.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이다.

오답 해설

- ②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뜬.
- ③ ‘ㄷ’은 입 모양을 본뜬.
- ④ ‘ㅅ’은 이의 모양을 본뜬.
- ⑤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07. 기본 모음자는 ‘·, ㅡ, ㅣ’ 3자이며, 각각 하늘, 땅, 사람의 형상을 본떠 만들었다.

08. ㉠은 자음자를 나란히 붙여서 만든 글자로, 이를 병서의 원리라고 한다.

09. ‘ㄱ’은 땅을 본뜬 글자인 ‘ㅡ’와 하늘을 본뜬 글자인 ‘·’를 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오답 해설

- ① ‘·’와 ‘ㅣ’를 합하여 만든 글자는 ‘ㅏ’와 ‘ㅑ’이다.
- ②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④ ‘ㄱ, ㆁ’는 합성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지긴 했지만, 기본 모음자 11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이다.
- ⑤ 기본 글자에 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

10. ‘ㆁ’은 예외적으로 만든 글자(이체자)로 획을 더해 만들었지만 소리가 거세지지는 않았다.

11. 모음자는 기본자 3자를 서로 합하여 만들었다. ‘·’와 ‘ㅡ’를 합하여 ‘ㄱ, ㆁ’를 만들고 ‘·’와 ‘ㅣ’를 합하여 ‘ㅏ, ㅑ’를 만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기본자를 합해 모음자를 완성했는데, 이러한 원리를 합성의 원리라고 한다.

12. ‘ㄷ’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뜬 ‘ㄴ’에 가획을 해 만든 글자이다.

13. ‘ㅃ’은 같은 글자를 나란히 써서 만든 글자로 병서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병서의 원리가 적용된 글자들은 기본 자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4. ‘ㅋ, ㆁ, ㆅ, ㅂ, ㅍ, ㅈ, ㆆ, ㅎ’은 기본 자음자에 소리가 거세지는 것을 반영하여 획을 더하여 만든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모음의 기본자를 만든 원리이다. 자음의 기본자에도 상형의 원리가 적용되었으나 자음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

떠서 만들었다.

- ③ 이체자는 가획의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소리가 강해진다는 원리가 적용되지는 않은 글자이다.
- ④ 자음의 기본자를 만든 원리이다.
- ⑤ 병서의 원리는 자음자를 만든 원리에 해당한다. 모음자에서 글자를 합쳐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합성의 원리이다.

15. ㉠ 기본자는 ‘ㄱ, ㄴ, ㄹ, ㅁ, ㅂ, ㅇ’이다. ㉡ 자음자는 가획의 원리를 통해 기본자를 확장해 나갔다.

16. ‘ㄱ’은 기본자인 ‘ㄱ’과 ‘ㅣ’가 합하여 ‘ㄲ’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ㅇ’이 한 번 더 결합하여 만들어진 글자이다.

17. ‘ㄱ, ㄴ, ㄹ’은 각각 ‘ㄱ, ㄴ, ㄹ’에 ‘ㅇ’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로 합성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병서의 원리는 ‘ㄱ, ㄴ, ㄹ’과 같은 글자에서 나타난다.
- ② ‘ㅇ(엷이음)’은 이체자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③ ‘ㄱ, ㄴ, ㄹ’은 병서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ㅅ, ㅆ’은 가획의 원리가 적용된다.

18. ‘ㄱ, ㄴ, ㄹ, ㅁ, ㅂ, ㅅ, ㅆ’는 합성의 원리에 의해 ‘ㄱ, ㄴ, ㄹ, ㅁ, ㅂ, ㅅ, ㅆ’가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기본자를 만든 원리는 상형의 원리이다.
- ② ‘ㄱ, ㄴ, ㄹ, ㅁ, ㅂ, ㅅ, ㅆ’는 ‘ㅇ’과 ‘ㅣ’를 합하여 만든 것이다.
- ③ 모음자는 기본자와, 기본자를 합성하여 만든 8자를 더하여 총 11자이다.
- ⑤ 기본 모음자에 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그 외 모음자를 만들었다.

19. 한글은 의미 단위가 아니라 음소 단위, 음절 단위로 표기하기 때문에 오늘날 정보화 기기에서 빠르고 쉽게 입력이 가능하여 우리나라가 정보 통신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20. <보기>는 ‘바람 소리, 학의 울음, 닭의 꿩치며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이 글자를 가지고 적을 수가 있다.’를 풀어쓴 것이다. 모아쓰기의 기준은 한꺼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 즉 음절이다. 풀어 쓰면 어떤 글자인지 잘 알 수 없으나 모아쓰기를 하면 읽고 쓰기에 훨씬 효율적이다.

21. 알파벳으로 발음을 입력한 뒤에 해당 문자로 변환해야 하는 일본이나 중국의 한자 입력 방식에 비해 한글은 컴퓨터 자판에서 바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문자를 입력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한글의 특성은 속도가 중요한 정보화 시대에 적합하다.

22. 제시된 자판에는 ‘획추가’ 버튼이 있어서 가획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합성의 원리를 활용하여 글자를 입력할 수 있다.

23. 초성: 이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는 ‘ㅅ’이고 거기에 획을 한 번 더한 자음은 ‘ㅆ’이다. 중성: 하늘(·)과 사람(丨)을 한 번 합하여 만든 모음은 ‘ㅏ, ㅑ’이다. 종성: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기본자는 ‘ㅇ’이다.

24. 한글의 자음은 기본 글자에서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여 다른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만 보아도 서로의 연관성을 알 수 있는 글자이다.

25. ‘ㄱ, ㄴ, ㄹ, ㅁ, ㅂ, ㅇ’에 획을 더해 기본 자음자 17자를 완성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가획자는 소리가 거세지면서 획을 더한 것이다.
- ② 병서자는 기본자와 기본자를 한 획을 더해서 만든 것이다.
- ④ 이체자는 소리가 거세진다는 특성이 없다.
- ⑤ 기본자에 한 획을 더한 가획자는 ‘ㅋ, ㆁ, ㅆ, ㅅ, ㅇ’이다.

26. 제시된 자료는 한글이 영어와는 달리 소리와 문자가 일대일로 대응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기계가 음성으로 통제되는 미래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한글의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다.

27. ‘ㅇ,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은 이체자로 획이 더해졌어도 소리가 강해지지 않았으며 자음 17자에 포함되는 글자이다.

28. ㉠과 ㉡은 우리말, 특히 문장의 특성일 뿐, 한글(문자)의 우수성으로 볼 수 없다.

29. ‘ㅏ’는 ‘ㅇ’과 ‘ㅣ’가 합쳐진 글자이다.

오답 해설

- ② 기본자인 ‘ㅇ,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를 서로 합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모음자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8자를 만들어 총 11자를 완성하였다.
- ③ 모음의 기본자 중에서 ‘ㅇ’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④ 모음의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자음의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으므로, 모두 상형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 ⑤ ‘ㄱ, ㄴ, ㄹ, ㅁ, ㅂ, ㅅ, ㅆ’은 ‘ㄱ, ㄴ, ㄹ, ㅁ, ㅂ, ㅅ, ㅆ’에 ‘ㅇ’을 한 번 더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이다. ‘ㄱ, ㄴ, ㄹ, ㅁ, ㅂ, ㅅ, ㅆ’은 ‘ㅇ, ㅣ’에 ‘ㅇ’을 합쳐서 만든 글자이므로, ‘ㄱ, ㄴ, ㄹ, ㅁ, ㅂ, ㅅ, ㅆ’은 ‘ㅇ’이 두 번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0. ‘ㄱ-ㅋ’과 ‘ㄷ-ㅌ’에는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지만, ‘ㅇ-ㆁ’, ‘ㅅ-ㅆ’에는 가획의 원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31. 제시된 자료에서 보듯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자를 컴퓨터로 입력하는 과정은 매우 번거롭다. 반면 한글은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2 정보를 담은 그림, 픽토그램

개념 확인 목록

• 본문 p.082

01. ② 02. ② 03. ③

01. 발표할 때 동작은 자연스럽게, 발표 내용에 맞도록 적절하게 취해야 효과적인 발표가 된다.
02. ②는 발표 계획 세우기의 단계로 발표의 주제와 목적이 정해져야 그에 따른 발표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03. 효과적으로 매체를 활용하려면 사전 계획과 준비가 필수적이다. 무조건 많은 매체를 사용하기보다는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매체를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확인 문제 •

• 본문 p.084

01. ④ 02. ① 03. ⑤ 04.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여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이다. 05. 그림 문자 06. ② 07. ④ 08. 픽토그램의 기원 09.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기 종목과 사용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전하려면 픽토그램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10. ④ 11. ③ 12. ⑤ 13.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개최국의 개성이나 이미지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 14. ⑤ 15. ③ 16. 픽토그램의 최근 특징

01. (가)~(나)는 발표의 처음 부분으로 발표의 핵심 정보는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여러분, 안녕하세요.'에 나타나고 있다.
- ② 발표 주제가 '픽토그램'임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저는 △△중학교 2학년 ○○○입니다.'에 나타나고 있다.
- ⑤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들을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02. 발표 주제와 관련하여 픽토그램의 예를 보여 줌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03. (가)에서 픽토그램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이라고는 밝히고 있으나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라고 밝히고 있다.
- ② '중학교 2학년 학생'임을 알 수 있다.
- ③ '화장실 픽토그램'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 ④ '공공장소나 화장실, 비상구, 엘리베이터'에서 픽토그램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04. 질문을 통해 발표자는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며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한다.
05. (다)에는 픽토그램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가장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핵심어는 '그림 문자'이다.
06. 교통 표지판 픽토그램을 자료로 제시하여 청중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07. 산업 혁명 때 기술, 운송 수단의 발달로 픽토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기술, 운송 수단과 관련해서만 픽토그램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08. (마)에서는 픽토그램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그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09. 올림픽 픽토그램에 관한 내용은 (바)에 제시되고 있다.
10. 올림픽 픽토그램을 통해 1936년 올림픽부터 2018년 평창 올림픽까지의 픽토그램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11. 올림픽 픽토그램의 역사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12. 매체 자료는 발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다. 발표 내용이 부실하면 좋은 자료도 의미가 없다.
13. 올림픽 픽토그램의 원래 역할은 정보 전달이었으나 점차 개최국의 개성이나 국가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14. 최근에 나타난 픽토그램은 정보뿐 아니라 감성까지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 것이지 비교하여 감성을 더 많이 담고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15. (자)는 발표의 끝 부분으로 발표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끝 인사를 하고 있다.
16. (자)는 최근의 픽토그램은 정보뿐만 아니라 감성까지 담은 특징이 있다는 내용이다.

학습 활동 다지기

· 본문 p.088

이해 다지기 문제 1. ⑤

목표 다지기 문제 1. ⑤ 2. ⑤

이해 1. 시드니 올림픽 이후 픽토그램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 개최국의 개성까지 표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정보 전달적 기능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정보 전달적 기능과 함께 국가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수단적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목표 1. 이 발표문에서는 올림픽 픽토그램을 올림픽 개최 연도 별로 모두 제시하지 않고 몇 가지만 선별해서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⑤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 준비 과정을 추측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2. 매체 자료는 발표자가 아닌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소단원 핵심문제

· 본문 p.093

01. ④ 02. ③ 03. ③ 04. ㉠처럼 글로만 설명된 것보다 ㉠처럼 그림으로 구성되면 핵심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05. ④ 06. ② 07. 최근 픽토그램은 '진입 금지'라는 같은 정보를 담더라도 ㉢처럼 감성까지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08. ④ 09. ⑤ 10. ③ 11. (가)는 처음, (나)~(마)는 중간, (바)는 끝 부분이다. 처음 부분에서는 발표 목적과 발표 주제를 제시하고, 중간 부분에서는 픽토그램의 어원과 뜻, 기원, 올림픽 픽토그램, 최근 특징 등 핵심 정보를 제시하고, 끝 부분에서는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있다. 12. ② 13. ② 14. ④ 15. 픽토그램은 국적과 언어에 상관없이 (경고나 안내, 지시와 같은) 정보를 누구에게나 바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 (다)에는 픽토그램의 뜻과 어원이, (라)에는 오늘날 픽토그램이 주목 받는 까닭이, (마)에는 픽토그램의 기원이 나타나고 있다. ④도 이 글에 나타나고 있으나 핵심 정보가 아니라 세부 정보에 해당한다.

02. 발표자는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픽토그램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그림 자료로 제시하여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03. 이 발표의 목적은 픽토그램에 대한 정보를 나누려는 것이지만 픽토그램을 감상하려는 것이 아니다.

04. 글로만 구성된 것보다는 ㉠과 같이 그림으로 된 것이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05. 이 글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올림픽 픽토그램의 역사를 보여 주고 있으나, 올림픽 픽토그램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올림픽 픽토그램과 진입 금지 픽토그램의 예를 활용하여 청중의 흥미를 이끌어 내고 발표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올림픽 픽토그램의 예를 제시할 때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발표 내용을 구성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공적인 말하기에 해당한다.
- ⑤ 올림픽 픽토그램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그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픽토그램의 역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06. (나)에 제시된 픽토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올림픽 픽토그램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상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세밀하게 묘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나)에 보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부터 올림픽 픽토그램이 탄생했다고 말하고 있다.
- ③ (가)에 보면 올림픽 픽토그램은 경기 종목과 사용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④ (다)에 보면 오늘날의 올림픽 픽토그램은 국가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 ⑤ (나)에 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올림픽 픽토그램이 개최국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07. ㉠은 진입 금지를 나타내는 표지판으로 최근 픽토그램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08. 픽토그램은 국적과 언어, 문화를 초월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그림이지만, 올림픽 픽토그램에서 보듯이 시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대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나)에서 픽토그램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라고 하였다.
- ② (가)에서 픽토그램은 공공장소나 화장실, 비상구 등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라)에서 보면 픽토그램은 개최국의 개성까지 표현한다고 제시하였다.
- ⑤ (다)의 마지막 문장에 나타나고 있다.

09. (나)에는 정의의 방법이, (다)에는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인과의 방법이, (마)에는 두 표지판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

10. (다)에는 픽토그램의 기원이 된 네 가지 교통 표지판을 제시하는 것 정도가 적절하다.

11. (가)는 처음 부분으로 발표 주제가 제시되고 있으며 (나)~

(마)는 중간 부분으로 핵심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바)는 끝 부분으로 발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

- 12. 이 발표는 그냥 그림이 아니고 정보를 담은 그림인 픽토그램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이다.
- 13. 매체 자료는 시청각적 특성을 통해 청중에게 직접 보여 주고 들려줌으로써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으나 청중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
- 14. 올림픽 픽토그램의 특징을 올림픽 개최 연도 순서대로 모두 제시하면 지나치게 많은 정보로 인해 오히려 청중의 이해를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는 화장실 픽토그램을 예로 들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나)에는 픽토그램의 어원이 말로 설명되고 있으나, 그림 자료가 추가된다면 청중들에게 더 흥미로울 수 있다.
 - ③ (다)에서는 올림픽 픽토그램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개최국의 개성까지 보여 준다고 말하면서 개성 있는 픽토그램의 예를 제시하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
 - ⑤ (마)는 끝부분으로 픽토그램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발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
15. 앞 문장은 픽토그램이 오늘날 주목 받는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에는 픽토그램의 특징과 관련지어 픽토그램이 주목 받는 이유를 서술해야 한다.

대단원 확인 문제

• 본문 p.098

- 01. ⑤ 02. ②, ④ 03. ①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다름을 인식한 부분에서 자주 정신이 나타난다. ②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엾게 여긴다는 부분에서 애민 정신이 나타난다. ③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글을)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한다는 부분에서 실용 정신이 나타난다.
- 04. ④ 05. ㆍ, ㅅ, ㅈ, ㅊ, ㅌ 06. ④ 07. ㉠ ㄱ, ㄴ, ㄹ, ㅁ, ㅂ, ㅅ, ㅇ ㉡ ㆍ, ㅡ, ㅣ 08. ③ 09. ⑤ 10. ④ 11. ④ 12. ③
- 13. ③ 14.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일대일로 대응한다.(한글은 한 글자가 한 가지 발음으로 읽힌다.) 15. ⑤ 16. ⑤
- 17. ③ 18. 1909년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협약으로 최초로 채택된 교통 표지판의 그림 자료 19. ① 발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②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청중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 ② 21. (나)-(라)-(가)-(다)-(바)-(마)
- 22. 청중의 흥미와 주의를 끌 수 있다. 발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다. 23. ④ 24. ① 25. ③ 26. ②
- 27. 획이 더해지기는 했지만 소리가 거세진다는 원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01. (가)에 나타난 당시에는 우리 글자가 없어 한자로 책을 만들었으나, 한자를 모르는 백성은 그 책을 읽을 수 없었다. (가)에서 백성들이 문자 대신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02. ② 한글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익혀 쓸 수 있는 글자이다. ④ 세종 대왕이 우리 글자를 만들고자 한 것은 한자보다 우수한 문자를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 한자와는 다름을 인식하고 우리 말에 맞는 글자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 03. 세종 대왕이 쓴 『훈민정음』 서문에는 자주 정신, 애민 정신, 실용 정신이 나타나고 있다.
- 04. 자음 기본자 ‘ㄱ, ㄴ, ㄹ, ㅁ, ㅂ, ㅅ, ㅇ’과 모음 기본자 ‘ㆍ, ㅡ, ㅣ’는 모두 사물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는데, 이러한 창제 원리는 상형의 원리이다.

오답 해설

- ① 모음에는 합성의 원리가 나타난다.
 - ② 자음에는 가획의 원리가 나타난다.
 - ③ 병서의 원리로 만든 글자는 28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이체자도 28자에 포함된다.
- 05. 세종 대왕이 만든 28자 중에 현재는 24자의 글자만 사용된다.
 - 06. ④는 한글 창제의 정신으로 한글을 만든 과학적인 원리와는 관련이 없다.
 - 07. 한글의 기본 자음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으로 각각은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한글의 기본 모음자는 ‘·, ㅡ, ㅣ’로 각각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08. ‘ㄹ’은 가획의 원리를 온전하게 적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만든 글자로, ‘ㅋ, ㄸ, ㅌ’ 등과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온전한 가획의 원리에 의해 만든 글자는 9개이고 예외적으로 만든 글자는 3개이다.

09. 기본자 ‘·’를 ‘ㅡ, ㅣ’와 합쳐 ‘ㅏ, ㅑ, ㅓ, ㅕ’를 만들었다.

오답 해설

- ① ‘합성의 원리’이다.
- ② 모음자 8자를 만들었다.
- ③ ‘·’와 ‘ㅡ’를 합하여 만든 글자는 ‘ㅏ, ㅑ’이다.
- ④ ‘ㅏ, ㅑ, ㅓ, ㅕ’에 ‘·’를 합하여 ‘ㅗ, ㅛ, ㅜ, ㅠ’를 만들었다.

10. 자음자와 모음자를 모아쓰면 어떤 글자인지 잘 알 수 있어 읽고 쓰기에 편하다. 또한, 소리의 단위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빠르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모아쓰기를 한다고 해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11. ④도 한글의 우수성이긴 하지만, 이 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한글이 컴퓨터 자판에서 입력이 편리하다는 점과 (라)에서 한글의 원리가 휴대 전화의 자판에서 빛을 발한다는 사실은 한글이 정보화 시대에 매우 유용한 글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나)에서 한글은 소리글자라서 발음이 곧 표기가 된다고 제시되고 있다.
- ③ (다)에서 24자라는 유한한 수의 기호를 통해 무한에 가까운 천지자연의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 ⑤ (나)의 마지막 문장에서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의 조합으로 쉽고 빠르게 정보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12. 모음의 기본자 중 ‘·’가 빠졌으나 모음끼리 합치거나 모음에 ‘획추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합성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다.

13. ‘ㄱ, ㄴ, ㅁ, ㅂ, ㅅ, ㅇ’은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자음이고, ‘ㄹ’은 이체자이다.

14. 한글 모음 ‘ㅏ’는 모든 단어에서 같은 소리를 나타내지만, 영어 모음 ‘a’는 단어에 따라 다른 소리로 나타난다.

15. 너무 많은 매체를 사용하면 오히려 청중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주제에 부합하는, 꼭 필요한 자료만을 활용해야 한다.

16. (마)는 프랑스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픽토그램의 한 사례를 통

해 최근 픽토그램의 감성 표현 특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17. (라)는 올림픽 픽토그램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평창 동계 올림픽의 동영상 자료는 발표 주제와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 ① (가)에는 픽토그램의 어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그림 자료가 제시된다면 청중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 ② (나)에서 첫 번째 문장은 픽토그램이 오늘날 주목 받고 있다는 결과에 대해 드러내고 있고, 두 번째 문장은 픽토그램이 오늘날 주목 받는 원인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결과를 밝혀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인과의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 (다)에는 픽토그램이 생겨나게 된 원인(당시 기술과 운송 수단이 크게 발달했기 때문, 나라 간의 교류가 늘어났기 때문 등)이 제시되고 있고, 그 결과 1909년에 교통 표지판이 국제 협약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인과의 설명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
- ④ (마)에는 진입 금지 픽토그램을 보여 주는 자료를 통해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가)~(마)에서는 픽토그램의 어원, 픽토그램이 주목 받는 까닭, 픽토그램의 기원, 올림픽 픽토그램의 역사, 최근 픽토그램의 특징을 체계적인 순서대로 잘 제시하고 있다.

18. (다)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어떤 매체 자료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19.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에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면 발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발표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청중이 훨씬 잘 이해하게 된다.

20.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픽토그램은 호주 원주민의 부메랑을 주제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메랑을 활용하여 픽토그램을 만든 자료를 찾는다.

21. 첫인사와 발표 주제가 소개되고 있는 부분은 처음이고, 중간 부분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끝부분에서는 끝인사를 하며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

22. 화장실 픽토그램과 진입 금지 픽토그램은 발표 내용을 청중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도록 돕고 있으며, 청중의 흥미와 주의를 이끌고 있다.

23. (나)에는 픽토그램의 뜻을 밝힌 부분에서 정의의 방법이 나타나고 있으나 (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가)는 한글을, (나)는 그림 문자인 픽토그램을 소재로 하고 있다.

4 함께 이해하는 설명

• 본문 p.123

확인 문제 01. ② 02. 객관적

- 01. 설명의 목적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읽는 이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데 있다.
- 02. 설명하는 글을 쓸 때 글쓰이는 설명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1 세금, 얼마나 알고 있나요

개념 확인 **특목**

• 본문 p.124

01. ① 02. 예시 03. ④

01. 구름이라는 말의 의미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였다.

오답 해설

② 대조, ③ 분석, ④ 분류, ⑤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02. 구름의 다양한 생김새에 따라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의 예를 들어서 구름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였다.

03. '구름이 생기는 이유'는 원인과 결과를 밝혀서 설명하는 '인과'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의 경우도 '인과'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세금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해야 하므로, 분류가 적절하다.
- ② 날개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부분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해야 하므로 분석이 적절하다.
- ③ 구체적인 드라마의 예를 제시하여 설명해야 하므로 예시가 적절하다.
- ⑤ 두 대상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대조가 적절하다.

확인 문제

• 본문 p.126

01. ① 02. ② 03. 세금 납부가 국민의 의무임을 강조한다. 04. '정의'는 어떤 사물이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설명 방법인데, (나)에서는 '세금'의 뜻을 명확하게 풀이하고 있다. 05. ② 06. ② 07. ①, ② 08. 세금을 걷

는 방식 /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09. ① 10. ⑤ 11. ②
12. 소득이 적은 사람이 지는 부담이 크다 13. ④ 14. ③
15. ② 16. 탈세를 예방할 수 있다.

01. 이 글은 세금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도입 부분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하여 흥미를 끌면서 설명 대상을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다.

02. (가), (나)에서는 국민이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면서 세금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 이어질 내용에서는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일화를 인용했을 뿐 미국의 세금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다.
- ③ 케네디 대통령의 국가관은 세금 납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글쓰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 ④ 세금 납부에 대하여 마땅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을 뿐 반대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⑤ 일반적인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다루기는 하지만 전 세계의 납세의 의무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

03. ㉠에서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이면에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04. (나)에는 세금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는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05. (다)에서는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사용하는 다양한 쓰임새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과, ③ 정의, ④ 분석, ⑤ 분류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06. (다)에서 정부가 세금을 들여 하는 일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법률 제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참고로 '법률 제정'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다.

07. (라)에서는 세금을 걷는 주체를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마)에서는 세금을 걷는 방식을 기준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라)에서는 국세, 지방세의 개념을, (마)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개념을 밝혀 주고 있다. 대상의 개념을 풀이하여 명확하게 밝히는 설명 방식을 '정의',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을 '분류'라 한다.

08. ㉠은 직접세와 간접세를 나누는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부분

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직접 내느냐, 간접적으로 내느냐가 기준이 되는데, 세금을 걷는 '국가'가 주어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맞는 구절을 넣어야 한다.

- 09. (바)에서는 간접세의 대표적인 예가 부가 가치세임을 설명하면서, 부가 가치세를 걷는 방식을 학생들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 10. 간접세는 소득이 적을수록 내야 할 세금의 비율이 높다.
- 11. (사)와 (아)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장단점을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직접세와 간접세의 개념은 (바)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정의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 ③ 직접세와 간접세는 추상적 개념으로 외양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변화의 과정이 제시되지도 않았다.
- ④ 두 대상이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와 (아)에서는 차이점을 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사)와 (아) 모두 두 대상을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 12.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 없이 공평하게 부과되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세금 납부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13. 세금을 잘 걷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자)에 드러나지 않았다.
- 14. (자)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장단점을 비교·대조하면서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비교·대조는 두 가지 대상을 제시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오답 해설

- ① 영화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종류를 나눌 수 있으므로 분류·구분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연극이 완성되기까지의 각 단계별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과정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무대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요소를 쪼개어 설명할 수 있으므로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대표 작품의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할 수 있으므로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 15. 설명문은 대체로 설명 대상을 제시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처음 부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중간 부분, 요약 정리하는 끝 부분으로 구성된다. (차)는 끝 부분에 해당한다.
- 16. 가게에서 영수증을 챙기는 것은 세금 부과 기준인 소득을 드러나게 하여 궁극적으로 탈세를 막는 일이다.

학습 활동 다지기

· 본문 p.130

- 이해 다지기 문제** 1. ⑤ 2. ⑤ 3. ③
목표 다지기 문제 1. ④ 2. ③ 3. ② 4. ①, ③ 5. ⑤
 6. ⑤ 7. ④ 8. ①

이해 1. 직접세와 간접세는 세금을 걷는 방식에 따른 분류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내는 방식을 직접세라 하고, 부가 가치세와 같은 방식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내는 방식을 간접세라 한다.

- 2. 글쓴이는 처음 부분에서 독자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 케네디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하였으며, 중간 부분에서는 세금의 뜻과 쓰임새,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끝 부분에서는 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3. 이 글은 설명문으로, 세금의 뜻과 종류, 쓰임새 등에 대해 알기 쉽게 풀이하여 독자가 설명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 1. 간접세를 걷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간접세인 부가 가치세의 예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 2. 대상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은 대상의 범주를 명확하게 밝혀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주는 것이다.
- 3. 국세는 중앙 정부 기관이, 지방세는 지방 자치 단체가 걷는 세금으로, 세금을 걷는 주체에 따라 구분한 개념이다.
- 4.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주체가 직접 내는 것으로, 소득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여 높은 소득을 얻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일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있다.

오답 해설

- ② 국민이 라면을 소비하면서 내는 세금은 간접세에 해당한다.
- ④ 담배세는 제품을 소비하는 과정을 통해 내는 세금으로 간접세이다.
- ⑤ 책이라는 소비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간접세에 해당한다.
- 5. 이 글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면서 각각의 개념을 정의하고, 예를 들어 대상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특성과 장단점을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 6. (가)에서는 구들의 구조를 아궁이, 고래, 굴뚝으로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궁이에서 고래, 굴뚝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는 과정에 따라 세 부분의 특징을 상세하게 설

명함으로써 구들의 전체적인 구조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은 ‘분류·구분’인데 (가)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7. (가)에서는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분석은 전체 대상을 부분으로 나누어 세밀화하여 설명하는 방식이다. 주로 대상의 구성 요소나 구조를 설명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다.

오답 해설

- ① 링컨의 말을 끌어온 ‘인용’이다.
- ② 사회적 편견의 예를 들었으므로 ‘예시’이다.
- ③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공통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교’이다.
- ⑤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하여 컴퓨터 고장이라는 결과가 발생함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과’이다.

8. (나)는 인과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피지가 잘 배출되지 못하고 모공 안에 쌓여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여드름이 생기는 결과가 발생한다.

소단원 핵심 문제

• 본문 p.135

01. ③ 02. ③ 03. ④ 04. ⑤ 05. ② 06. 탈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영수증 챙기기(주고받기)와 같은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07. ② 08. ② 09. ③ 10. 우리나라는 화석 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초미세 먼지 노출도가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화석 연료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

- 01. 이 글은 설명문으로 글쓴이는 설명 대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 02. (다)에서는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03. (라)에서는 세금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구分的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 04. 상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은 상품에 부과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정부가 간접세를 걷는 데 도움이 된다.

오답 해설

- ① 간접세는 세금이 포함된 상품의 판매와 소비라는 행위를 통해 부과되고 징수되는 특징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국가에서는 상품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해 두면 저절로 세금이 징수되므로 더 편리하다.

③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소득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

④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인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직접 내는 것이고, 간접세는 상품 구매나 다른 행위를 통해 실제 세금의 부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는 것으로, 세금 내는 방식이 다르다.

05. (라)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비교·대조하면서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06. 정의는 대상의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마)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 즉 탈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막아야 할 범죄로 규정하였다.

07. (가)에서는 구들의 구조에 대하여, (나)에서는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다)에서는 한국의 초미세 먼지 노출도에 대하여 사실적 정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하고 있다.

08. (가)에서는 구들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전체 대상을 세부적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은 분석이다. ②에서도 소설을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어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예시의 방법으로 동양 고전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시를 형식의 정형성을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므로 구分的 방법이다.
- ④ 인기 있는 반려견의 예를 제시하였으므로 예시의 방법이다.
- ⑤ 던지기를 도구에 따라 종류를 나누어 설명하였으므로 구分的 방법이다.

09. (나)는 인과의 방법으로 여드름이 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여드름은 얼굴 등에 나는 붉고 작은 종기를 가리키는 말로 사춘기에 왕성하게 분비된 피지가 모공에 쌓여 배출되지 못한 채로 세균이 증식하여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10. (다)에는 우리나라가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아 초미세 먼지 노출도가 높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2 설명하는 글 쓰기

개념 확인 특독

• 본문 p.138

01. 공통점, 차이점 02. 대조 03. ③ 04. (1) 구분 (2) 인과 (3) 분석

01. 비교·대조는 대상이 둘 이상이 있을 때 각각의 대상이 가지

는 특성 중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여 대상의 특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설명 방법이다.

- 02.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이 어떤 기준을 두고 서로 다른 점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각각의 대상이 지니는 특성을 보여 준다. '축구와 야구'는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기 종목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는데, 경기 종료 기준은 다르므로 대조이다.
- 03. 야구 경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예시이다.
- 04. (1) 씨름을 경기 인원을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므로 구분의 방법이다. (2) 한파로 인해 체온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원인으로, 독감을 결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과의 방법이다. (3) 곤충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를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므로 분석의 방법이다.

• 확인 문제 •

• 본문 p.140

01. ㉒ 02. ㉔ 03. 공통점: 미생물에 의하여 일어나는 분해의 과정, 차이점: 분해의 결과물이 유해한 것은 부패, 유용한 것은 발효이다. 04. ㉑ 05. ㉒ 06. 부유하면서도 탐욕적인 인물이다. 07. ㉕ 08. ㉓ 09. 컬링의 역사, 컬링의 경기 규칙, 컬링의 선수 구성, 컬링의 경기 장비, 컬링의 주요 기술 등 중 택 3 10. ㉒ 11. ㉑ 12. ㉕ 13. 나. 설명 대상이 '한국어 어휘의 분류'이므로 순우리말, 한자어, 외래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나 은 그런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14. ㉒ 15. 나. 나 을 머리말의 맨 앞으로 옮긴다. 16. ㉑-정의 ㉒-예시 17. ㉒ 18. ㉔ 19. ㉒ 20. 피그말리온 효과의 상대적인 개념인 스티그마 효과를 들어 두 대상을 대조함으로써 긍정적인 생각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21. ㉒ 22. ㉔ 23. 본문, 피그말리온 효과와 상대적인 개념인 스티그마 효과를 제시하고 사례를 들어 피그말리온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01. ㉗에서는 마술의 개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며, ㉘에서는 사람들이 마술을 신비하게 바라보는 이유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 02. 자전거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어떤 대상을 구성하는 부분을 세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분석'이라 한다.
- 03. 비교·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이 일정한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특정한 부분에서는 차이점을 보일 때 활용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이다.

- 04. 정의는 대상의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설명 대상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해 준다. 일반적으로 설명문의 도입 부분에서 설명 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할 때 활용한다.
- 05. 전체 대상을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분석이라고 한다. 버섯이라는 전체 대상을 세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관현악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해야 하므로 분석이 가장 적절하다.
- 06. 비교·대조는 두 대상을 견주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기>에서는 흥부와 놀부가 작품 속에서 보여 주는 성품의 차이에 주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흥부를 긍정적인 성품으로 설명하였으므로 뒷부분에서는 놀부를 부정적인 성품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 07. 설명하는 글은 독자에게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이해시키기 위해 쓰는 글이다. 독자가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설명 대상을 선정하여 다양한 자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설명하면서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 08.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고자 하므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적 정보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쓴이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정보에 대한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
- 09. 기사에서는 컬링이라는 종목에 대하여 국민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컬링을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독자가 잘 모르고 있는 컬링의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어 컬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 10. 설명문은 글쓴이가 객관적인 태도로 상세하게 풀이할 수 있어야 한다. ㉒는 비교·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 답 해 설

- ① 지난 일요일에 겪은 일은 주관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쓰게 되므로 설명문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 ③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하여 주관적인 입장에서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므로 설명문으로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④ 할아버지의 일대기를 고달프다는 입장에서 글을 쓰게 되므로 설명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분쟁에 대해 주관적인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되므로 설명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 11. 설명하는 글은 일반적으로 설명 대상을 정하는 등 계획을 세운 후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일정한 흐름에 따라 개요를 작성한 후 글로 쓴다. 초고를 완성한 후에도 고쳐 쓰는 과정을 통해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12. 설명하는 글은 독자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므로, 독자의 수준에 맞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3. 자료는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 개요는 '처음-중간-끝'의 흐름에 따라 제시할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선정한 내용을 순서에 맞추어 배열한 것이다. 개요 짜기는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에서 하는 활동이다.
15.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 대상이 무엇인지 밝히고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풀이해 주는 것이 좋다. 개요를 보면 이 글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의 유래'를 먼저 제시하고 있는데 그 앞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는 것이 내용 이해에 더 도움이 된다.
16. 대상을 설명할 때는 내용에 맞는 설명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컬링'의 개념을 설명할 때는 정의, 컬링의 경기 장비 종류를 설명할 때는 예시의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17. 이 글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의 뜻과 유래를 밝히면서 실제 피그말리온 효과가 가지는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스티그마 효과와의 비교·대조를 통해 긍정적 사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18. 설명문에서는 설명하는 내용에 따라 적절한 설명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설명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설명 방법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자칫 내용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으며, 독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19. ㉠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설명 대상에 대하여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대상의 뜻을 파악케 하면서 대상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게 한다.
20. ㉠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와 스티그마 효과를 대조하고 있다. 스티그마 효과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들어 그와 반대인 피그말리온 효과(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1. 개요에서는 컬링의 뜻과 경기 장비, 경기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글을 쓸 때 개요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지만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주제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2. '부담'은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짐.'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에는 '기대에 대하여 응해 줌.'의 의미인 '부응'이 적절하다.
23. 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도록 문단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소단원 핵심문제

· 본문 p.149

01. ① 02. ⑤ 03. 거미를 곤충과 견주어서 그 특징이 두드러지도록 설명한다. 04. ③ 05. ③ 06. ④ 07. ⑤ 08. ① 09.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 독자를 이해시키고자 한다. 10. ⑤ 11. ① 12. ④ 13. 피그말리온 효과와 스티그마 효과의 차이점 14. ② 15. ①

01. 설명문은 글쓴이가 잘 알고 있으면서 독자는 잘 모르는 대상을 다루어야 한다. 설명문은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독자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글로, 글쓴이는 대상에 대하여 주관적인 태도를 배제하고 사실적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02. 대상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식에는 분류·구분과 분석이 있다. 분류·구분은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대상을 대등한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식이며, 분석은 대상을 구성하는 작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03. 거미가 곤충과 비슷한 생김새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곤충이 아니라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04. <보기>에서는 자전거를 구성하는 요소를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역시 거미의 몸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약기를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종류를 나누어 구분의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각 종류에 따른 예를 들었으므로 분류와 예시이다.
- ② 온실 효과가 원인이 되어 해수면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므로 인과이다.
- ④ 버섯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였으므로 정의이다.
- ⑤ 설날 세시 풍속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므로 예시이다.
05. <보기>에서는 두 대상을 서로 견주어 비교·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방법은 서로 대등한 관계의 두 대상이 지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대상의 특성을 강조할 때 활용한다. ③은 인과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06. 컴퓨터가 고장이 나는 결과가 어떤 원인에서 나타나는 것인지를 밝혀 설명해야 하므로 인과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07. ⑤는 하위 항목을 상위 항목으로 묶는 분류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 ①, ②, ③, ④는 구분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08. 글 쓰기는 '계획하기-내용 선정하기-내용 조직하기-표현하기(글 쓰기)-고쳐쓰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계획하기는 글을 쓰기 전 준비 단계로, 글을 쓰는 목적과 그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예상 독자를 분석하는 글 쓰기의 첫 단계이다.
09. 책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 더 조사하여 독자에게 알려 주기 위한 글을 쓰고자 한다.
10. 글쓰이는 전문 서적과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출처를 명확하게 메모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문가와의 인터뷰는 나타나지 않는다.
11.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자료는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므로, 그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제시해야 한다. 피그말리온 효과의 다른 이름은 대상에 대한 개념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로젠탈 교수의 연구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언급된 것으로, 로젠탈 교수의 연구 자료 목록 일체에 대한 정보는 주제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다.
- ③ 스티그마 효과는 피그말리온 효과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스티그마 효과의 부정적 영향을 추가하면 주제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 ④ 교육부 블로그는 자료 수집 매체일 뿐이다.
- ⑤ 글을 통해 피그말리온 효과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그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는 것은 자칫 주관적인 내용으로 흐를 수 있다.
12. 스티그마 효과는 피그말리온 효과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으나 그 발견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다.
13. (라)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와 상대적인 개념인 스티그마 효과의 개념을 활용하여 피그말리온 효과를 위한 긍정적 사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4. (나)와 (다)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의 입증 사례를 구체적인 예시로 보여 주고 있다.
15. ㉠은 말로 표현하거나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 속담 역시 말한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말을 그칠 줄 모르고 잘한다.'라는 의미이다.
- ③ '말은 금방 쉽게 퍼지니 말조심하라.'라는 뜻이다.
- ④ '말만 잘 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다.

- ⑤ '내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남도 나에게 좋게 한다.'라는 말이다.

대단원 확인 문제

· 본문 p.153

01. ③ 02. ④ 03. ① 04. ② 05. 학교는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 학교, 공립 학교, 사립 학교로 나뉜다. 국립 학교는 국가, 공립 학교는 지방 자치 단체, 사립 학교는 개인이나 법인이 만든 학교를 가리킨다. 06. ③ 07. (국민이 내는) 세금은 (주로) 어디에 쓰일까? 08. ② 09. ① 10. ② 11. ③ 12. ①, ④ 13. (가)는 구들의 구조를 분석의 방법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보기>는 구들의 뜻을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14. ② 15. (라). (라)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스티그마 효과와 견주어 설명하면서 긍정적 기대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보기>에서도 칭찬이라는 긍정적 표현의 힘을 비난과 같은 부정적 표현과 견주어 말하고 있어서 연결이 자연스럽다. 16. ② 17. ② 18. ② 19. ③ 20. '여성상을 조각했는데,'를 삭제하였다. 내용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경우 그 내용은 삭제한다. 21. ③

01. 이 글에서는 세금의 정의를 밝히면서 세금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이 탈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임을 설명하고 있다.
02. (라)에서는 간접세의 대표적인 예인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라)는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문단이다.
03. (가)에서는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면서 글에서 다룰 대상이 세금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04. 세금을 걷는 것을 '징수'라고 한다.

오답 해설

- ① '모금'은 '기부금이나 성금 따위를 모음.'의 의미이다.
- ③ '부여'는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줌.'의 의미이다.
- ④ '보충'은 '부족한 것을 보태어 채움.'의 의미이다.
- ⑤ '몰수'는 '법이 금하는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관청에서 모두 거두어들임.'의 의미이다.
05. 설립 주체에 따라 학교는 국립 학교, 공립 학교, 사립 학교로 나눌 수 있다.
06. 간접세는 모든 사람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공평하게 내기 때문에 국민 간의 소득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내어 국가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된다.

- 07. (가)에서는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어떤 일에 사용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08. (다)~(마)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서로 견주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서도 오징어와 문어를 비교·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분석, ③ 구분, ④ 비교, ⑤ 예시이다.

- 09. ㉠은 직접세를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함으로써 개인 간 소유 재산의 정도가 서로 비슷해지도록 한다는 것이며, ㉡은 상품에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여 개인이 내는 세금의 금액이 같도록 한다는 것이다.
- 10. 간접세는 국민이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 가격에 세금을 포함시켜 걷는 것으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일이 세금을 계산하거나 징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어 편리한 방법이다.
- 11. 설명문에서는 독자에게 새로운 사실이나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므로 사전적인 의미를 자닌 용어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12. (나)에서는 여드름의 정의를 밝힌 뒤 사춘기에 여드름이 자주 나는 결과가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다)에서는 초미세 먼지의 정의를 제시한 뒤 우리나라의 초미세 먼지 노출도가 높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밝혀 설명하고 있다.
- 13. (가)에서는 구들의 구조를 아궁이, 고래, 굴뚝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기>에서는 구들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 14. 이 글은 피그말리온 효과의 개념과 유래, 실험 사례, 상대적 개념인 스티그마 효과 등에 대해 조사하여 설명한 글이다.
- 15. <보기>에서는 칭찬과 비난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 서로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라)의 내용과 가장 유사한 전개를 보인다.
- 16. 글쓴이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설명하면서 질문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삶이 더 의미 있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 17. ㉠은 쥐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키운 결과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이다. ㉡와 ㉢, ㉣은 긍정적인 기대

에 해당하며, ㉤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에 해당한다.

- 18. (가)는 세금을 내는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마)는 주거의 유형을 과거와 현대의 시대를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나)는 예시, (다)는 정의, (라)는 비교·대조의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19. (나)에서는 간접세의 하나인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간접세는 직접세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세금을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내용 문단의 일부로 볼 수 있다.
- 20. <보기>의 '여성상을 조각했는데'는 뒤에 이어지는 '자신이 조각한 여성상'이라는 부분과 중복되는 문구로, 고쳐쓰기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 21. (마)는 주거의 유형을 분류, 예시, 인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과거와 현대의 주거를 비교·대조하여 설명하였다. ㉢은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자료이다.

오답 해설

- ① (마)에서는 역사의 변화에 따른 주거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옥 마을 사진을 제시하면 어느 한 시대만을 보여 주게 되어 설명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② 인구의 도시 집중은 주거 유형의 변화에 대한 원인의 하나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우려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는 글의 주제와 무관하다.
- ④ 콘크리트 건물이 주거 유형의 변화로 인해 나타났다는 설명이 있지만 콘크리트 건물의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통해 주거 유형을 설명하는 것은 주제와 무관하다.
- ⑤ 도시의 인구 집중 과정은 주거 유형과 관련이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변화의 정도를 필요로 하는 내용은 없다.

궁금해서가 아니라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정진에게 주의
를 주기 위해서 한 말이다.

③ ㉠은 등교 또는 하교 시간에 문구점 안에서 이루어진 담
화 상황이고, ㉡는 학교 수업 시간에 교실 안에서 이루어
진 담화 상황이다.

⑤ ㉠과 ㉡의 “정진아, 뭐 하니?”는 같은 말이라도 시간과
공간, 즉 담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됨을 보여
준다.

06. ③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설명이다.

07. ④의 발화는 혼잡한 버스에서 내린다는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제가 이번에 내려야 하니 비켜 주세요.’의 의미로 해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창문이 열린 상황에서 춥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창문을
닫아 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딸이 밤늦게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이 몇 시냐고 묻고 있으
므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옷 가게에서 옷을 입어 보는 상황에서 이 옷이 어떠냐고
묻고 있으므로, 자기에게 이 옷이 어울리냐는 의미로 해
석할 수 있다.

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마주친 상황에서 화장
실은 금연 구역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화장실에서 담배
를 피우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08. 이 만화에서는 말하는 이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효자’라는
말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09. ③의 아버지의 말에는 밤늦게 들어오는 아들을 꾸짖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으므로, 아들의 대답은 상황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다.

10. 여학생은 남학생을 비꼬기 위해 ‘효자’라고 말했는데, 남학생
은 이를 표면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 대답하고 있다.

11. 저승사자는 전화를 안 해서 서운했다는 씨니의 말을 지금 바
로 전화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의 앞부분을 보면, 씨니가 저승사자를 일부러 찾아온
것이 아니라 육교에서 우연히 또다시 만나게 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② 씨니는 저승사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 말하고 있다.

③ 씨니는 저승사자가 전화를 안 해서 서운했다는 의도로 말
을 하고 있는데, 저승사자는 그러한 씨니의 감정이나 의
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⑤ 저승사자는 돌려 말하는 어법에 익숙하지 못해 씨니의 말
을 표면 그대로 해석하고 있을 뿐,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
일부러 엉뚱하게 대답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2. 해가 다 지도록 커피만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함께 이
야기를 나누어 보자는 의도로 한 말이다.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씨니와 저승사자는 인사나 안부 얘기도 없이 커피만 마
시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3. [B]에서 씨니는 저승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였으나, 저승사자는 이를 표면 그대로 해석하
여 대답하고 있다.

14. 씨니는 저승사자가 돌려 말하는 어법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씨니는 전화번호를 건네며 호감을 표현했고, 저승사자 역
시 씨니에게 관심이 있지만 씨니의 돌려 말하는 어법을
저승사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대화가 원활히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③ 저승사자가 씨니의 말에 담긴 의도나 목적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하고 계속 엉뚱하게 대답하여, 둘 사이의 대화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④ 씨니가 돌려 말하는 어법에 익숙하지 못한 저승사자의 처
지를 고려하여 직접 어법을 사용했다면 둘 사이의 대화는
좀 더 원활했을 것이다.

⑤ 씨니와 저승사자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은 저승사자가 씨니의 의도와 목적, 즉 상황 맥락을 제대
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5. 같은 말이라도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16. 발화의 의미는 실제 의사소통의 상황 속에서 결정되므로 표
면적 의미를 중심으로 의사소통해서는 안 된다.

17. 저승사자는 씨니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18. ‘포도시’의 의미를 손자와 할머니가 다르게 이해한 것은 나이
와 세대가 달라서가 아니라 사는 지역이 달라서이다.

19.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지역, 세대, 문화 등과 같은 요인, 즉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20. 신조어의 사용에 익숙한 세대인 딸은 ‘직구’를 ‘(해외) 직접
구매’의 줄임말로 사용했지만, 아빠는 신조어가 낯선 세대
로, 야구의 용어 ‘직구(변화 없이 곧게 던지는 공)’로 이해하
고 있다.

21. 역사적 상황이나 이념이 다르면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
락을 갖게 된다.

오답 해설

- ① 사회·문화적 맥락은 의사소통이 지역, 세대, 계층, 문화, 역사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상황 맥락은 담화의 수용,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만, 사회·문화적 맥락은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 ④ 상황 맥락을 고려해도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 ⑤ 사회·문화적 맥락은 특정한 공동체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맥락이다.
22. '우리'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23. ①~③의 만화는 모두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된 담화 상황을 다루고 있다.
24. 사회·문화적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계층, 성별, 세대, 문화, 나이, 지역' 등이 있다.
25. ㉠은 점순이 '나'와 친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한 말이다. ㉣ 역시 친교의 목적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 ①은 요청, ②, ⑤는 질문, ③은 제안의 목적을 보여 준다.
26. 이 글에서 '감자'는 '나'에 대한 점순의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27. ㉠에는 귀한 것을 줌으로써 '나'가 고마워하고 자신을 좋아하게 하려는 점순의 의도가 담겨 있다.
28. '나'가 점순의 호의를 거절한 것은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점순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29. (나)의 내용을 통해 가난한 농촌의 현실, 지주·마름·소작농이라는 신분 체계의 존재 등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점순의 말을 통해 당시 감자는 귀한 음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감자가 주식으로 사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 ②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 여부는 (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③ (나)에서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 소문이 사납다'고 하였지만, 동리에서 쫓겨났다고는 볼 수 없다.
- ④ (나)의 내용을 통해 마름인 점순네가 소작농인 '나'의 가족의 생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당시 마름이 소작농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 30. 소작농의 아들인 '나'가 마름의 딸인 점순과 사귀었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나'의 가족은 땅도 떨어지고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31. (나)의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 까닭이었다.'를 통해 '나'가 점순과 사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 (나)에는 마름의 딸과 소작농의 아들이라는 계층의 차이가 드러나 있다.
- 33. 사회·문화적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적·문화적 상황과 관련된 맥락이다.

창의·융합 활동

· 본문 p.172

- 01. ② 02. 발화의 상황 맥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03. ③
- 04. "그럼 닭을 잡아 술안주를 마련하게." 05. ②

- 01.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의 "양심을 지켜 주세요."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삼가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공원에서 벤치에 휴지를 버린다는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의 말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④ 버스 터미널에서 새치기를 한다는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의 말은 차례 또는 공공질서를 지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 모두 같은 말이 사용되었지만 상황 맥락은 서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02. <보기>에서는 "양심을 지켜 주세요."라는 똑같은 발화가 여러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는 발화의 의미가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03. 친구는 김 선생의 발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친구는 마당에 닭들이 있었음에도 채소만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인색함을 보이고 있다.
- ② 김 선생은 닭을 잡아 안주를 마련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잡아 안주로 삼고 자신은 닭을 빌려서 타고 돌아가겠다며 돌려서 표현하고 있다.

④ 김 선생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재치 있게 돌려 말함으로써 친구의 웃음을 유발하며 태도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⑤ 친구는 자신의 인색함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김 선생의 말을 듣고 나서 호탕하게 웃으며 답을 잡아 대접하는 아량을 보여 주고 있다.

04. 자신의 말을 잡아 술안주를 하고 자신은 답을 빌려서 타고 돌아가겠다는 말에는 친구에게 답을 잡아 술안주를 마련하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05. ②는 말하는 이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반면,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단원 핵심 문제

· 본문 p.175

01. ① 02. ③ 03. ④ 04. ④ 05. 상황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06. ③ 07. 상대방의 발화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08. 포도시 09. ⑤ 10. ① 11. ② 12. ② 13. ③ 어리숙하고 순박함 ⑥ 마름 14. (나)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맥락을 참고하면 (가)에서 '나'는 점순과의 계층 차이로 인해 점순의 호의를 거절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01. 담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나 발화의 연속체이다.

오답 해설

② 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도 있으므로, 한 단어로 된 말도 담화가 될 수 있다.

③ 같은 말이라도 말하는 이, 듣는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등에 따라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④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은 담화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맥락을 가리킨다.

⑤ 추상적인 생각이 구체적인 문장으로 실현된 것은 발화이다.

02.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즉 맥락이 달라지면 같은 발화라도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그 역할이 계속 서로 바뀔 수 있다.

②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나에 따라 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달라지므로, 발화 내용은 말하는 이의 의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④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는 시간적·공간적 상황과 관련된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다.

⑤ 담화는 말하는 이, 듣는 이, 발화 내용,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등으로 구성된다.

03. 사회·문화적 맥락은 담화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04. (가)와 (나)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공간적 상황이 다르며, 그에 따라 담화의 의미도 다르게 해석된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등교 또는 하교 시간에 문구점 안에서 이루어진 담화이다.

② (나)는 학교 수업 시간에 교실 안에서 이루어진 담화이다.

③ (가)와 (나) 모두 발화를 수용하는 사람, 즉 듣는 이는 '정진'이다.

⑤ (가)와 (나)에서 발화를 표현하는 사람, 즉 말하는 이는 각각 정진의 친구와 선생님이므로 서로 다르지만, 발화는 "정진아, 뭐 하니?"로 동일하다.

05.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공간적 상황, 즉 상황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06. (가)와 (나)는 모두 말하는 이의 의도와 목적, 즉 상황 맥락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됨을 보여 준다.

07. ㉠의 남학생과 ㉡의 저승사자는 모두 상대방의 말을 표면적 의미 그대로 이해하여 대답하고 있다.

08. (가)에서는 할머니가 사용한 전라도 방언 '포도시'를 손자가 표준어로 이해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09. (나)에서는 딸이 사용한 줄임말 '직구'의 의미를 아빠가 이해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하였다. 즉 세대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로 인해 대화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아빠와 딸 모두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

② 아빠가 딸이 잘 모르는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딸이 아빠가 잘 모르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③ 딸은 운동화가 너무 비싸서 사기 어렵다는 아빠의 발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④ 아빠와 딸의 대화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상황 맥락이 달라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 때문이다.

10. 우리나라에 예로부터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발달한 표현이다.

11. (가)는 할머니와 손자가 사는 지역 차이로 인해, (나)는 딸과 아빠의 세대 차이로 인해, (다)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문화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2. ㉔ 앞의 내용을 보면 '나'는 평소 점순에 대해 별다른 감정을 품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㉓은 점순이 '나'가 진짜 혼자만 일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말이 아니라 '나'와의 친교를 목적으로 한 말이다.
- ③ ㉑은 '나'의 집에 감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한 말이다.
- ④ ㉒에서 '감자'는 '나'에 대한 점순의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⑤ ㉔에서 '나'가 점순이 내민 감자를 거절한 것은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점순의 말에 자존심이 상하였기 때문이다.

13. ㉑ 점순은 '나'에게 감자를 주며 환심을 사려 하지만, 어리숙한 '나'는 점순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㉒ (나)의 내용을 통해 점순이 마름의 딸임을 알 수 있다.

14. (나)에는 소작농의 아들과 마름의 딸이라는 '나'와 점순의 계층 차이가 드러나 있다.

2 들판에서

개념 확인 문구

• 본문 p.178

01. 공감 02. ① 03. ④

01. 공감은 상대방의 생각에 관심을 두고 서로 신뢰하며 진심을 나누는 과정이다.

02.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먼저 고려해야 하며, 상대방의 말을 수용적 태도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오답 해설

- ㉑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이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 ㉒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수용적 태도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03. 공감적 대화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 방법이다.

확인 문제

• 본문 p.180

01. ④ 02. 대사 03. ② 04. 막이 오른다. 05. ②, ④
 06. ② 07. ② 08. ④ 09. ④ 10. ④ 11. 들판
 12. ① 13. 안정되고 평화로운 심리 상태에서 미심쩍고 불안한 심리 상태로 변한다. 14. ① 15. 말뚝과 밧줄로 인해 형

제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16.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격을 드러낸다. 17. ㉑ 갈등 ㉒ 삼팔선 18. ① 19. ③ 20. (화를 내며) 21. ④ 22. ① 23. ⑤ 24. ④ 25. ② 26. ③ 27. 집, 젖소 28. ① 29. ② 30. 측량을, 빼앗았죠 31. 젖소 32. ⑤ 33. ④ 34. ③ 35. 사건을 진행시킨다. /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 사건의 성격을 암시한다. /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36. ③ 37. 아우 38. 독백 39. ⑤ 40. 맑았던, 불어온다 41. ②, ③ 42. ④ 43. ② 44. ① 45. ① 46. ② 47. ⑤ 48. 감시용 전망대 49. ③ 50. ⑤ 51. 아우 52. 감시용 전망대 53. ③ 54. 들판의 경제적(투자) 가치 55. ③ 56. 벽 57.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조급한 마음을 부추겨 서둘러 분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58. ② 59. ③ 60. ⑤ 61. ② 62. (장)총 63. 긴장(감)의 유발 64. ② 65. ② 66. 5명 67. ① 68. ②, ③ 69. ④ 70. ③ 71. ④ 72. ④ 73. ③ 74. ① 75. ③ 76. 민들레꽃 77.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운다. 78. ③ 79. 총구를, 겨눈다 80. ① 81. ⑤ 82. 한 줄기 햇빛, 산들바람, 민들레꽃 83. ②

01. 등장인물, 장소, 무대 등을 설명하는 글을 해설이라고 한다.

02. 희곡에서는 대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시키고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03. 서로를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우애 깊은 형제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형과 아우가 서로 상대방의 그림 솜씨를 칭찬하고 있을 뿐, 형이 아우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린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 ③ 형과 아우 모두 다정한 성격을 보이고 있지만, 욕심이 많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 ④ 형과 아우 모두 들판에서 상대와 함께 평생토록 살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을 뿐,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 ⑤ '저 하늘 위에서 바라보고 계실 거'라는 아우의 말과 '이렇게 좋은 곳을 우리 형제에게 물려주셨'다는 형의 말을 통해 볼 때, 형제는 돌아가신 부모가 물려준 들판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지시문을 찾는다.

05. 평화롭고 한가로운 정경을 보여 주고 있다.

06. 희곡은 배경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는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다.
- ③ 희곡은 배우의 연기를 지시하여 무대 위에서 인간의 행동을 표출하는 문학, 즉 행동의 문학이다.
- ④ 희곡은 무대 위에서 직접적으로 인생을 표현하는 문학이므로, 모든 이야기를 현재화하여 표현한다.
- ⑤ 희곡은 인물의 성격과 의지의 대립에 따른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 07. ㉠에 이어지는 형제의 맹세와 관련지어 이해한다.
- 08. (라)의 내용으로 볼 때, 측량 기사는 매우 뻔뻔스럽고 위선적임을 알 수 있다.
- 09. ㉠의 대사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불만스러워 항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10. ‘조수 2’는 형제에게 접근할 목적으로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 11. 형제에게는 들판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가지는 데 비해 측량 기사에게는 쉽게 계량화되는 땅으로서의 물질적 가치만을 갖는다.
- 12. 서술자는 소설에만 있다.

오답 해설

- ② 소설과 희곡 모두 인물 간의 대화가 나타난다.
- ③ 소설과 희곡 모두 인간 삶의 다양한 모습을 다룬다.
- ④ 소설과 희곡의 인물은 모두 주제를 구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 ⑤ 소설과 희곡의 사건은 모두 인물들의 갈등을 통해 나타난다.

- 13. 측량 기사와 조수들이 갑자기 나타나 형제에게 묻지도 않고 형제의 들판에 말뚝을 박자 형제의 안정되고 평화로운 심리 상태가 깨지게 된다.
- 14. 밧줄은 형과 아우를 갈라놓는 역할을 한다.
- 15. 형과 아우가 말뚝과 밧줄로 인해 단절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관객도 이에 유의하면서 연극을 보아야 할 것이다.
- 16. 희곡에서는 일반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 17. 밧줄은 형제간의 반목과 다툼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며, 삼팔선을 상징한다.
- 18. 아우는 밧줄을 썩충썩충 뛰어서 넘어 다니는 것을 재미있어한다.

오답 해설

- ② “너도 건너와. 나한테 있는 거라면 뭐든 빌려줄 테

니…….”라는 형의 말을 통해 형이 아우에게 애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밧줄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밑으로 몸을 낮춰 아우에게 가는 모습 등을 통해 형이 대범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형과 아우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신경이 쓰이는지 말뚝과 밧줄을 힐끗힐끗 바라본다.’를 통해 형과 아우가 밧줄에 신경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말뚝과 밧줄로 인해 걱정하는 형을 안심시키는 모습이거나, 형과 달리 밧줄을 썩충 뛰어서 넘어가는 모습 등을 통해 아우는 낙천적이고 적극적인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19. ㉠은 아우에 대한 형의 애정이 나타나는 내용으로, 형제의 상반된 성격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④와 ㉠은 소심하고 소극적인 형의 성격을, ㉡와 ㉢은 대범하고 적극적인 아우의 성격을 드러낸다.

- 20. 형은 줄넘기 놀이에서 아우에게 연속해서 지자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났다.
- 21. 형과 아우 사이의 우애가 깨지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다.
- 22. 형은 아우에게 항상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아우는 형을 이긴 것에 대해 지나치게 뽐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23. 아우는 형의 억지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24. 형과 아우는 각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평행적 대립을 보이고 있다.
- 25. 싸움의 원인은 형과 아우 모두에게 있다.

오답 해설

- ①, ④ 줄넘기 놀이를 하며 발생한 사소한 오해로 인해 형과 아우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고 우애가 깨지고 있다.
- ③ 형과 아우의 감정 대립이 재산 분배로 이어지고 있다.
- ⑤ 측량 기사가 쳐 놓은 밧줄로 줄넘기 놀이를 하다가 다툼이 발생한 것이다.

- 26. (아)에는 형과 아우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형제는 줄넘기 놀이를 하다 다툼 이후 서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 27. 형은 집을, 아우는 젓소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
- 28. 형제간의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사태가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경우를 비유하는 속담은 ㉠이다.

오답 해설

- ②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기세를 올리고 나무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 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남의 재앙을 점점 더 커지도록 만들거나 성난 사람을 더욱 성나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⑤ 사물의 일부를 보고 전체를 미루어 알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 29. 전개 단계의 기능을 생각해 본다.
- 30. 측량 기사는 형제의 땅을 모두 빼앗으려 하는데 이러한 의도가 '조수 2'의 대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 31. 아우는 젓소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벽을 설치하고자 한다.
- 32. 벽은 형과 아우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독립'과 같은 긍정적 의미를 띠고 있지 않다.
- 33. 벽 설치 등 모든 일은 측량 기사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34. 형제간의 대립과 단절을 통해 남북 분단의 현실을 다루었을 뿐 역사적인 사실을 소재로 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민들레꽃, 말뚝, 밧줄, 벽' 등의 상징적인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다.
 - ② 형과 아우, 측량 기사의 갈등 관계를 통해 우리의 분단 현실을 그린 단막극이다.
 - ④ 형과 아우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⑤ 형과 아우의 대립과 단절은 남북 분단의 현실을 보여 준다.
- 35. 대사는 사건을 진행시키고 인물, 사건의 성격, 주제를 드러낸다.
 - 36. 형제가 서로 사과하는 문제를 놓고 몹시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다.
 - 37. (카)에 나타난 아우의 말("벽은 잘못된 거야. 내가 너무 심했어.")을 살펴본다.
 - 38. 형과 아우가 각각 혼자 말하고 있다.
 - 39. 사과를 결심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
 - 40. 이 글에서는 날씨의 변화가 뒤에 일어날 사건의 성격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41. 형제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심화될 것임이 암시되고 있다.
- 42. ④는 시의 언어에 대한 설명이다.
- 43. 글쓴이는 '사람들'을 통해 현대인의 이기적인 속성을 보여 주고 있다.
- 44. 사람들에게 형제의 들판을 '여러분에게 분양해 드릴 땅'이라고 소개하며 형에게는 들판이 결국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측량 기사는 형제에게 땅을 빼앗아 사람들에게 분양할 생각이다.
- 45. ㉠은 측량 기사가 확신에 차서 하는 말이다.

오답 해설

- ②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림.'을 뜻하는 말이다.
 - ③ '의심을 품음. 또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을 뜻하는 말이다.
 - ④ '마음에 새겨 두고 조심함.'을 뜻하는 말이다.
 - ⑤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줌. 또는 그 주의를 뜻하는 말이다.
- 46. 희곡은 대사와 지시문에만 의존하는 문학 갈래이다.
 - 47. 측량 기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형제를 속이는 인물이다.

오답 해설

- ① 형이 아우를 의심하도록 의도적으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② 형제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다.
 - ③ 주인공인 형제와 대립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반동 인물에 해당한다.
 - ④ 광복 당시 우리나라의 분단을 조장한 외세를 상징한다.
- 48. 측량 기사는 형에게 벽 너머를 볼 수 있는 감시용 전망대를 소개하고 있다.
 - 49. '땅굴'은 측량 기사와 형의 대사 속에서 가정을 위해 언급되었을 뿐, 무대 위에 제시될 필요가 없는 소재이다.
 - 50. 전망대가 필요한 직접적인 이유와 관련지어 생각한다.
 - 51. 조수들은 지금 형과 대화하고 있으므로 '저쪽'은 멀리 떨어져 있는 쪽, 즉 아우를 가리킨다.
 - 52. 아우에 대한 형의 의심을 부추겨 감시용 전망대를 구입하도록 하는 측량 기사의 계략에 형이 넘어가고 있다.
 - 53. "저쪽에서 이런 걸 가지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라는 말에 상대방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구입 동기를 유발하려는 측량

기사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 54. '사람들'은 들판을 큰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 55. 싸우는 형제에 대한 비판의 의도와 함께 형제간의 싸움 때문에 땅값이 크게 오르리라는 역설적 발상이 드러난다.

오답 해설

- ① ㉠은 측량 기사가 사람들의 투기심을 조장하는 장면으로, 무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 ②, ④ ㉡에서 측량 기사는 땅을 사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감언이설로 속이고 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술한다거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⑤ 요약적 제시는 주로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이루어진다. ㉢은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이 제시되고 있다.

- 56. 측량 기사는 사람들에게 벽 때문에 들판이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57. 측량 기사는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잇속을 챙기고자 선착순 접수를 한다고 하고 있다.
- 58. 대표성은 전형적 인물, 성격의 변화가 없음은 평면적 인물의 특성이다. 성격의 변화가 있는 인물 유형은 입체적 인물이다.
- 59. 아우는 벽이 흉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60. 측량 기사는 아우의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벽이 생긴 것은 형 때문이라며 형에 대한 근거 없는 모함을 하여 아우에게 불안한 마음과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말하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61. 형이 젖소를 돌보고 있다는 언급은 없으며 앞선 형과 아우의 분쟁에서 젖소는 아우의 차이가 되었다.
- 62. 형과 아우의 대립의 심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를 찾는다.
- 63. '(장)충'은 형과 아우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극적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 64. 이 부분은 구성 단계상 '절정'에 해당한다.
- 65. 이 글은 남북의 대치 상황을 상징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 66. 인물의 대사뿐만 아니라 지시문도 잘 살펴야 한다. (머)에는 형과 아우, 측량 기사, 두 명의 조수 등 5명이 등장한다.
- 67. 전망대는 형이 동생을 의심하여 설치한 것으로 형제간의 갈등이 심화된 원인 중 하나이다.

오답 해설

- ② '총소리'로 인해 형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며 극적인 긴장감이 유발된다.

- ③ '탐조등'은 형이 아우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으로 인해 구입한 감시용 전망대에 장착된 것이다.
- ④, ⑤ '번개'가 치는 것, '천둥소리'가 울리는 음향 효과는 위기감을 증폭시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암시한다.

- 68. 조수들은 서로 총질하는 형제를 비웃고 있다.
- 69. ④는 이 글이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관점에서 감상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의 현실이 이 글에 반영되었다는 관점에서 감상한 내용이다.
- 70. ㉠은 측량 기사를 보조하는 부차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 71. 이어지는 측량 기사의 대사를 통해 형은 자신이 땅을 거의 잃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가장 적절한 지시문은 ④이다.
- 72. 측량 기사는 형을 무시하는 태도로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일에만 철저하며 일방적으로 명령, 협박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 73. 측량 기사는 형제가 계속해서 싸우기를 바라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당신 땅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측량 기사의 말을 통해 아직 형제의 모든 땅을 빼앗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측량 기사는 형제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의 땅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 ④ 측량 기사가 목표한 일은 형제의 땅을 모두 빼앗는 것이므로, 아직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 ⑤ 측량 기사는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을 뿐, 형제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74. 이 글은 갈등의 진행 과정에 따라 날씨를 변화시켜 극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 75. 이 글의 주제는 '형제간의 우애 회복, 남북의 화해와 통일'이다. 이러한 글의 주제와 단원의 주제 '상황에 맞는 대화'가 잘 조화된 접근은 ③이다.
- 76. 형은 민들레꽃을 발견하고, 이 꽃을 두고 자신들이 언제나 다정히 지내기로 맹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77. 아우는 후회와 반성의 눈물을 흘린다.
- 78. 이 글에서 형제는 비를 맞으며 벽을 지키는 처지가 되어 측량 기사의 흥계를 깨닫고 자신들의 지난 행위를 뉘우치고 있다.
- 79. 형이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에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 80. ㉠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 81. 형과 아우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화해하게 된다.
- 82. 비가 그치면서 햇빛이 비치고 산들바람이 불고 민들레꽃을 형제가 서로 주고받으며 갈등이 해소된다.
- 83. ㉠에서는 화해하고자 하는 형제의 의지(통일의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벽을 허무는 행위는 대립과 갈등의 종결을 의미하므로 통일에 대한 갈망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형제간의 우애 회복'이라는 주제가 벽을 허무는 행위를 통해 상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④ 서로에 대한 불신이 사라졌기에 벽을 허물고자 하는 것이다.
- ⑤ 벽을 허무는 행위에는 화해와 우애 회복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담겨 있다.

학습 활동 다지기

• 본문 p.198

이해 다지기 문제 1. ④ 2. ③ 3. ③ 4. 민들레꽃

목표 다지기 문제 1. ③ 2. ④ 3. ②

- 이해 1.** 형제는 비를 맞으며 현실을 자각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깊이 후회하게 된다.
- 2.** 측량 기사는 형제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인물로, 능청스럽고 교활하며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보인다.

오답 해설

- ①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보여 주는 인물은 형이 아니라 아우이다.
 - ②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보여 주는 인물은 아우가 아니라 형이다.
 - ④ 조수들은 측량 기사의 하수인으로, 측량 기사와 마찬가지로 능청스럽고 교활한 성격을 보여 준다.
 - ⑤ 계산적이고 치밀한 성격을 보여 주는 인물은 형제가 아니라 측량 기사이다.
- 3.** '비'는 형제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벽'은 형과 아우 사이를 가로막아 의사소통이 단절되게 함으로써 형제간에 오해와 의심이 싹트게 하는 소재이다.
- ② '흙'은 형제간의 갈등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소재이다.
- ④ '뱃줄'은 우애가 깊던 형제간에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⑤ '전망대'는 상대를 감시하기 위한 도구로, 형제간의 불신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소재이다.

4. 평화롭던 시절을 그리워하던 형제는 민들레꽃을 벽 너머로 던져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우애를 회복하게 된다.

목표 1. (나)에서 상대방에 대한 피해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인물은 형이 아니라 아우이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형은 아우의 그림에 관심을 보이면서 아우의 그림 솜씨를 칭찬하고 있다.
- ② (가)에서 아우는 형의 칭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형의 능력을 인정하며 칭찬하고 있다.
- ④ (나)에서 아우는 형의 상황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형에 대해 갖고 있던 피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에서 형제간에 갈등이 발생한 것은 서로 자기 뜻만 내세우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에서 범서는 상대방의 말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3. 연주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비난하면서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소단원 핵심문제

• 본문 p.204

01. ② 02. ③ 03. ② 04. 총 05. ② 06. ②
 07. • 주제가 집약된 문장: 우리, 벽을 허물기로 하자! • 문장에 담긴 의미: 우애를 회복하자. 08. ⑤ 09. ④ 10. ④
 11. ④ 12. 계속 자기 뜻만 내세우지 말고, 아우가 왜 피해 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아우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13. ① 14. ① 15. ② 16. ② 17. ③ 18. ⑤
 19. ㉠은 형제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은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한다. 20. ④ 21. ④ 22. 형과 아우

01. 이 글은 남북 분단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만, 역사에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쓴 역사극은 아니다.

02. 동생이 땅굴을 파고 있다는 것은 측량 기사가 형을 속이기 위해 한 말이다.

03. 이 글에는 '바람, 천둥, 번개, 비, 햇빛'과 같은 날씨의 변화가 드러나는데, 이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4. 이 글에서 '흙'은 형제간의 갈등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소재

로, 대립과 긴장, 갈등의 정점을 상징한다.

05. (나)의 대사는 등장인물이 혼자 하는 말인 독백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나)에 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인 '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나)의 대사에는 인물 사이의 갈등이 아닌 인물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 ④ '대사'가 아닌 '지시문'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⑤ '대사'가 아닌 '해설'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6. 아우는 독립하고 싶은 마음과 형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체면 때문에 사과하기를 망설이는 인물은 형으로,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다.

07. 이 글의 주제는 '형제간의 우애 회복'이다.

08. 이 글은 희곡이다. 희곡은 주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제를 전달한다.

09. 형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10. 형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고 형의 감정에 공감하며 말해야 한다.

11. ㉔는 동생에게 물감을 가져가라는 형의 말로, 특별히 성격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㉓, ㉔는 형의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격을, ㉕, ㉖는 아우의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을 보여 준다.

12. 형은 아우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대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3. 범서는 작품 속 아우의 입장에서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14. 이 글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희곡이다. 희곡은 직접적인 묘사나 해설이 불가능하므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오답 해설

- ② 희곡에서 인물의 성격과 심리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 ③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은 들판이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 ④ 작가가 이야기에 개입하는 장면은 찾을 수 없다.
- ⑤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순행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

15. (가)는 발단, (나)는 절정, (다)는 대단원, (라)는 전개, (마)는 하강에 해당한다.

16. (마)는 '하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며 사건이 반전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절정'에 대한 설명으로, (나)가 이에 해당한다.
- ③ '대단원'에 대한 설명으로, (다)가 이에 해당한다.
- ④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라)가 이에 해당한다.
- ⑤ '발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가 이에 해당한다.

17. 이 글에서 측량 기사는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여 벽을 쌓게 만들고,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서로 총을 들고 대립하게 만들고 있다.

18. '벽'은 형제간 소통을 단절시켜 갈등을 심화하는 소재이고, '민들레꽃'은 형제간 우애의 증표로서 형제의 우애를 회복시키는 매개체이다.

19. ㉠은 형제가 서로 위협사격을 하는 장면과 극적인 조화를 이루어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며, ㉡은 형제가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갈 것임을 암시한다.

20. '밭줄'은 광복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경계선이었던 삼팔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들판은 우리나라의 국토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벽은 삼팔선을 더욱 고착화한 휴전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측량 기사와 조수들은 우리 민족을 갈라놓은 외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형제의 싸움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1. 이 작품이 남북 분단이라는 우리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는 <보기>의 관점에 따르면, 이 작품은 남북의 동질성 회복 문제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만나야 할 한 핏줄'은 화합해야 할 남과 북을 가리키므로, 이 글의 형과 아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01. ① 02. ④ 03. ㉠: 무엇을 고르고 있니? ㉡: 수업 중에 단짓하지 말아라. ㉢: 상황 04. ① 05. ④ 06. 직구 07. ① 08.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이 발달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말한 거야. 09. ④ 10. ④ 11. ⑤ 12. ④ 13. 독선적 14. ② 15. ③ 16. ② 17. ① 18. ① 19. ② 20. ③ 21. (형이) 자신의 땅과 젖소를 빼앗으려는 것 22. ④ 23. ④ 24. ④ 25. 벽 26. 형제의 우애를 회복하게 하는 매개물이다. 27. ③ 28. ⑤ 29. ④ 30. ④ 31. ③ 32. ⑤

01. 담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나 발화의 연속체이다.

오답 해설

- ② 하나 이상의 발화가 모여 담화가 된다.
- ③ “아저씨, 한국대는 어떻게 가요?”는 발화 내용에 해당한다.
- ④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생각이 문장 단위로 표현된 것을 발화라고 한다.
- ⑤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상황 등은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02. 할머니가 한 말의 의미는 문장만 들여다보아서는 알 수 없고,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즉 담화의 상황 맥락을 살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할머니와 손녀는 각각 말하는 이도 되고 듣는 이도 된다.
- ② 손녀는 창문을 닫아 달라는 할머니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③ 할머니는 창문이 왜 열려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닫아 주기를 바라고 있다.
- ⑤ 상황이 달라지면 할머니의 말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03. 제시된 사례는 같은 말이라도 시간과 공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04. (가)와 (나)는 사회·문화적 맥락, (다)는 상황 맥락에 따라 같은 말이라도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05. (가)에서는 할머니가 사용한 지역 방언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06. (나)에서는 딸이 사용한 ‘(해외) 직접 구매’의 줄임말인 ‘직구’의 의미를 아빠가 이해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07. 여학생은 남학생이 ‘효자’라는 말을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해

석하여 당황하고 있을 뿐, 남학생이 모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② 여학생은 집안일을 도와야 하는 남학생의 처지를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남학생을 비꼬며 야속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남학생은 자신에게 서운함을 드러내는 여학생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④ 남학생은 ‘참 효자다, 효자!’라는 여학생의 말을 표면 그대로 해석하여 고맙다고 대답하고 있다.
- ⑤ 남학생은 자신을 비꼬기 위한 여학생의 발화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08. 한국인 친구들이 사용한 ‘우리’라는 말의 의미를 외국인 친구가 다르게 해석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09. 희곡은 장면의 변화에 제약을 많이 받지만, 드라마 대본은 장면 변화에 제약이 적다.

10. (나)에서 ‘나’는 점순의 관심과 애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점순이 내민 감자를 거절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씨니는 자신의 의도를 돌려 말하고 있다.
- ② (가)에서 저승사자는 씨니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씨니의 말에 담긴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③ (나)에서 점순은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인 ‘나’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지 못한 채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말로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
- ⑤ (다)에서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인물은 아우가 아니라 형이다.

11. ㉠은 형의 권위적인 태도를 비난하는 아우의 말로, 평소에 형에게 갖고 있던 피해 의식이 드러나 있다.

12. 마름의 딸인 점순과 사귀다고 소문이 나면 소작농인 자기 가족은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겨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이다.

13. 형은 동생의 생각이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 (다)에서 아우는 허공을 향해 위협적으로 총을 쏘고 있을 뿐, 형을 향해 총을 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5. 말뚝과 밧줄은 형제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16. ㉠에서 측량 기사는 형제가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

17. (나)에서 아우는 벽을 설치하고 싶은 마음과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심리적으로 갈등하고 있다.

18. ㉠은 형제의 땅을 빼앗으려는 측량 기사의 속셈을 보여 주는 말이다.

19. (다)는 인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오답 해설

①, ④는 발단, ③은 전개, ⑤는 대단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20. '조립식 벽'은 측량 기사의 술책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형제 간 소통의 단절을 의미한다.

21. 아우는 형의 진심을 모르며 형을 믿지 못하고 있다.

22. 이 글은 단막극으로 사건이 단순하고 등장인물의 수도 적은 편이다.

오답 해설

① 민들레꽃을 꺾어 던져 서로 화해의 마음을 전하려 하는 것으로 보아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이 작품은 한 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단막극이다.

③ 형제간에 마음의 벽을 넘어 위기를 극복하고 우애를 회복한다는 교훈적인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⑤ 작품 속 인물과 소재들을 통해 남북 분단이라는 우리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3. ㉠은 형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행동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24. ④에는 산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쓰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처럼 자연물이나 사물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 표현한 감정 이입의 기법이 쓰였다.

25. [A]에서 형은 웅졸한 자신의 마음이 '벽'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26. (나)에서 '민들레꽃'은 반목하고 대립하던 형제가 우애와 동질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매개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27. (가)는 발단, (나)는 하강, (다)는 전개, (라)는 대단원, (마)는 절정에 해당한다.

28.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은 희곡의 구성 단계 중 '절정'에 대한 설명이다. (마)가 '절정'에 해당한다. 또한 (마)에서는 형이 아우와의 화해를 시도하지만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29. (라)에서 형제는 서로 상대방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므로 승

리감에 들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0. (가)는 무대 지시문이다. 희곡에서 인물의 성격은 대사와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31. (라)에서 형과 아우는 서로 똑같은 생각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② 쇠귀에 경 읽기라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다.

⑤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을 뜻하는 말이다.

32. 빨간 양철 지붕의 집은 걸개그림 속에 그려진 풍경이다.